

요나구니(與那國)의 제주도 표류민 기억 전승과 문헌 기록의 대비 연구

우리어문학회(한창훈, 전경수, 송웅섭)

제주학연구 98

요나구니(與那國)의 제주도 표류민 기억 전승과 문헌
기록의 대비 연구

우리어문학회(한창훈, 전경수, 송응섭)

제주학연구센터

<목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
2. 문헌 기록의 재검토	7
3. 『성종실록』 김비의 일행 기사 분석	11
1) 선위사 이척의 장계	
2) 홍문관 기록	
4. 세조 대 표류민 양성·초득성 기사 분석	31
5. 구비전승의 검토	40
6. 핵심 전승자에 관한 고찰	50
7. ‘후가누토’ 전승과의 비교를 통해 본 실록 기사	63
8. 제주학과 대비 연구	79

<참고문헌>

<첨부 1>

： 전승자와 연구자와의 대화

<첨부 2>

： ‘후가누토’ 1부 · 6부 채록 자료

〈표목차〉

<표 1> 유구국에서 한국으로의 표류	8
<표 2> 한국에서 유구국으로의 표류	8
<표 3> 윤이 섬에서 유구국으로의 이동	15
<표 4> 유구국에서 조선에 이르는 여정	16
<표 5> 홍문관 기록의 구성	18
<표 6> 윤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20
<표 7> 소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22
<표 8> 포월로마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23
<표 9> 포라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23
<표 10> 흘운섬 풍속과 생활 문화	24
<표 11> 타라마 섬 풍속과 생활 문화	24
<표 12> 이라부 섬 풍속과 생활 문화	25
<표 13> 먹고 섬 풍속과 생활 문화	26
<표 14> 유구국 풍속과 생활 문화	26
<표 15> 양성의 유구국 체류 보고	32
<표 16> 초대성의 유구국 체류 보고	36
<표 17> 윤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6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조선 성종 연간에 제주도 출신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 일본 류큐 열도 서쪽 끝의 요나구니 섬에 표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1477년 음력 2월에 제주도에서 감굴 진상선을 타고 출항했다가 폭풍을 만나 조류에 떠 밀렸고, 약 14일간 표류하다 요나구니 섬에 닿았다. 사건 당시 제주 사람 13명이 배에 올랐으나, 표류 중 10명이 사망하고 3명(김비의, 강무, 이정)만 살아남아 귀환하였다.

요나구니 섬은 당시 공식적으로는 류큐 왕국에 속하지 않은 변방 섬이었고, 일본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실상의 자치지역이었다. 이 섬은 위치상 대만이나 남양 방면에서 표류해 오는 배들을 종종 구조해주던 경향이 있는 곳으로, 외부인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선의로 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살아 돌아온 제주민 3명은 국가에 대한 보고 임무를 마친 후 제주로 돌아와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들 모두 귀환하였으므로, 요나구니에 조선인이 정착하거나 혈통을 이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요나구니 섬 현지에는 제주 표류민에 대한 구비 전승이 전해 내려 오는데, 일부 전승에서는 섬에 ‘후가누토(미지 세상의 사람이라는 뜻의 현지어)’로 불린 후손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구비 전승의 진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500여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요나구니 주민들이 제주 표류민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구술로 전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

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조난 사고를 넘어서 제주와 류큐(오키나와)를 잇는 역사적 인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대에도 학문적 문화적 교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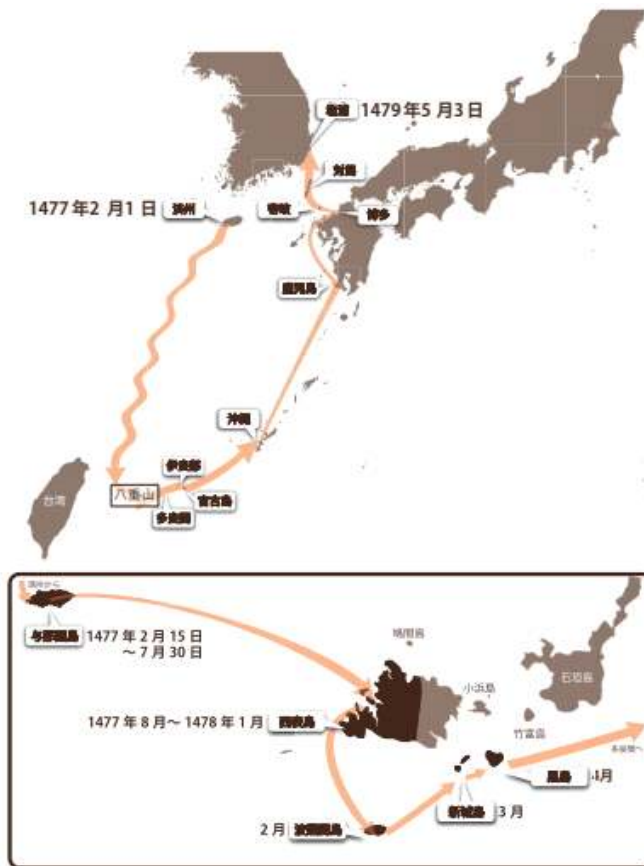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해외 지역 사람으로 제주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는 『하멜 표류기』가 유명하며, 우리나라 사람이 남긴 해외 표류·표착 기록 또한 많이 전해져 온다. 대중적으로는 장한철이나 최부의 기록이 유명한 편이다.

이런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 의하면, “표류자의 표류 동기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이나 개척의 의미인 모험적 성격에 의해서라기보다도 피동적으로 표류를 당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새로운 세계나 바다에 대한 동경 및 모험적 본능을 나타내는 해양관과는 대조된다”고 하였다.¹⁾ 이 점에서도 요나구니 구비 전승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특이하고 중요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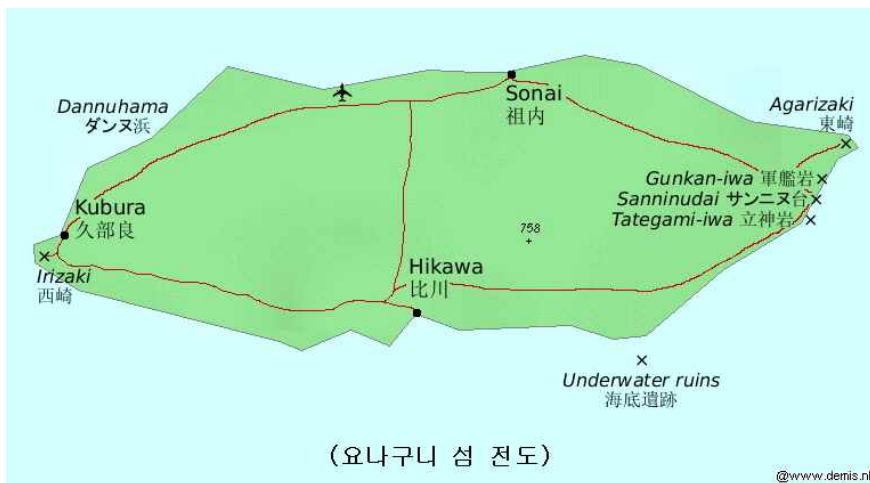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기록을 재검토하고, 이와 구비 전승의 내용을 대비적으로 고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문헌 기록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타자 인식을 넘어 주체의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비전승에는 ‘후가누토’를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생각과 감정이 잘 녹아들어 있으며, 이러한 전승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경과 시간을 넘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원천적이고 중요한 인류사의 자산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

1) 윤치부, 『한국해양문학연구』, 학문사, 1994.



(후가누토, 제주도 표류민 표류 여정)



(요나구니 섬 전도)

@www.demis.nl

2. 문헌 기록의 재검토

전통시대의 조선은 책봉체제의 울타리 안에서 명나라와는 사대 관계를, 일본을 비롯한 여진·유구 등과는 교린 관계를 맺으며 평화와 공존을 도모했다. 책봉체제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사대(事大)·자소(字小) 관계를 체계화한 상호 공존의 국제질서였다.²⁾

조선과 교린 대상국으로서의 유구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빈번했다. 『高麗史』에는 1389(창왕 원년) 8월 유구의 중산왕 찰도가 사신 옥지를 보내어 표문과 예물을 진헌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유구와의 교류 횟수는 조선 초기 중국·일본·여진 다음으로 많았다.³⁾ 손승철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유구 관계 기사는 건국 직후인 1392년 8월부터 시작되어 1840년 3월에 이르기까지 총 437건이 확인된다고 한다.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며 조선과 유구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조선과 유구의 관계는 사신 왕래, 무역 거래, 피로인(被擄人) 및 표류민 송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서도 표류민 송환 문제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양국의 주요 현안이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는 해상의 조난 사고가 잦다. 게다가 6

2) 손승철, 「朝·琉 交隣體制의 구조와 특징」 『江原史學』 13·14, 1998.

3) 하우봉, 「유구와의 관계」 『신편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000, p.410~412

4) 손승철, 「朝·琉 交隣體制의 구조와 특징」 『朝鮮과 琉球』 아르케, 2002, p.27~28.

월에서 9월 사이에는 오키나와와 필리핀해 인근에서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향해 하는 선박이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거나 표류인이 발생하는 일들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유구국 등의 표류민들이 『실록』과 『통문관지』 등에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 때문이었다.⁵⁾ 아래의 <표 1>과 <표 2>는 조선과 유구국 주민들의 표류 사실을 각각 정리한 것으로 이 같은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⁶⁾

<표 1> 유구국에서 한국으로의 표류

조난 시기	조난 내역	표착지	조난 시기	조난 내역	표착지
1589년(선조22)	유구국선	6월 조선해안	1820년(순조20)	유구인	제주도
1613년(광해군5)	유구국 왕자	8월 제주도	1826년(순조26)	유구인	제주도
1612년(광해군6)	유구인	제주도	1831년(순조31)	유구인	제주도
1794년(정조18)	유구인 7인	제주도 대정	1832년(순조32)	제주도	제주도
1807년(순조7)	유구인	가을 제주도	1860년(철종11)	제주도	제주도
1809년(순조9)	유구국 순견관	제주도 우도			

<표 2> 한국에서 유구국으로의 표류

조난 시기	조난 내역	표착지	조난 시기	조난 내역	표착지
1457년(세조 2)	제주 선군 양성 외	유구국	1797년(정조 21)	강진인 10명	유구국
1461년(세조 6)	조선인 2명	유구국	1804년(순조 4)	흑산도인 4명	유구국
1477년(성종 8)	조선인 8명	유구국 與那國島	1816년(순조 16)	전라도인	유구국
1545년(인조 1)	박손 외 12명	유구국	1826년(순조 26)	해남인 5명	유구국
1698년(숙종 24)	영암인 18명	유구국	1829년(순조 29)	해남인 12명	유구국

5) 김재승, 「한국·유구간 표류에 의한 문화적 접촉」 『동서사학』 2, 1996, p.142

6) 김재승, p.144·147에서 轉載.

1735년(영조 11)	조선인 20명	유구국	1833년(순조 33)	조선인	유구국
1780년(정조 4)	조선인 12명	유구국	1834년(순조 34)	조선인	유구국
1795년(정조 19)	조선인 12명	유구국	1837년(헌종 3)	조선인	유구국
1796년(정조 20)	황해도 장연인 7명	유구국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선의 유구국 표류는 15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유구국인의 조선 표류 역시 적지 않았다. 이렇듯 수많은 표류민 사례 가운데서도 유독 주목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1477년(성종 8) 제주도 출신 김비의 일행의 표류이다. 김비의 일행의 표류가 주목되는 이유는 그들의 표류 사실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성종실록』에는 김비의 표류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조선인의 유구국 표류 사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15세기 후반 제주도 출신 조선인의 유구국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다. 뿐만아니라 김비의 일행이 표류하다가 구조된 지역은 유구국 가운데서도 요나구니(與那國)라는 현재 오키나와 최남단에 있던 섬이었다는 점에서, 여타의 유구국 표류 사례와도 구별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종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김비의 일행의 표류 경험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류민의 체험과 관련한 『성종실록』의 기사들과 요나구니 섬의 전승을 통해 15세기 중반의 조선 출신 표류민이 죽음의 경계에서 낯선 땅에 들어선 뒤,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또 그 곳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 반대로 요나구니섬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에 귀국한 뒤 이들의 경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실록에 기록되게 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자 한다. 한 개인의 체험이 조정에 보고되어 실록에 남겨지기까지의 기록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던 특징과 한계점을 이해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종실록』에 기초해 김비의 일행의 표류에서부터 조선으로의 귀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곳에 체류하며 경험했던 다양한 사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김비의 일행의 경험을 세조 대 제주도 선군(船軍) 양성(梁成)의 표류 기록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세조실록』에도 양성의 표류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김비의 일행의 표류와 비교할 경우 양자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비의 일행의 표류민 생활을 현지인의 입장에서 전승해온 ‘후가누토’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김비의 일행이 표류했던 요나구니 섬 사람들은 이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일상을 세대를 거듭해 가며 지금까지 전승해 오고 있다. 표류민으로서의 김비의 일행의 표류 및 요나구니 섬 체류는 조선과 유구국 모두에서 전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1479년(성종 9)의 실록 기사와 요나구니 사람들의 전승을 비교할 경우 보다 풍부하게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조선인과 요나구니 섬 주민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성종실록』 김비의 일행 기사 분석

1) 선위사 이척의 장계 ; 『성종실록』 10년 5월 辛未條 기사

김비의 일행의 표류와 관련해서는 『성종실록』에 두 차례 정도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첫 번째 기록은 성종 10년 5월 16일조 기사로 선위사 이척이 博多에서 온 왜인들 및 유구국 사신 일행을 접대하는 자리에 나갔다가 왜인들과 함께 귀국한 김비의 일행의 표류 사실을 보고한 狀啓를 정리한 기록이고,⁷⁾ 두 번째 기사는 성종 10년 6월 10일조 기사로 홍문관(弘文館)에서 성종의 명을 받아 김비의 일행의 표류 사실을 상세하게 정리한 기사이다.⁸⁾

먼저 선위사 이척의 장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계란 조선시대에 왕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찰사(觀察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이 해당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청원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이척의 경우 유구국 사신을 접대하는 선위사로 임명되어 이와 관련한 업무를 국왕에게 장계를 통해 보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척의 장계에 기초한 실록 기사는 대체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사신단의 인적 구성과 표류민 김비의 등을 데려 오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7) 『성종실록』 권104 성종 10년 5월 16일(신미).

8)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 6월 10일(을미).

지금 온 유구국의 사신은 상관인(上官人) 신시라(新時羅)와 부관인(副官人)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 압물(押物) 요시라(要時羅)·야이라(也而羅), 선주(船主) 피고구라(皮古仇羅) 및 반종인(伴從人)·격인(格人) 등 합해서 2백 19인과 제주 표류인 김비을개(金非乙介)·강무(姜茂)·이정(李正) 등이 3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이번 5월 3일 염포(鹽浦)에 도착하였습니다.

위 기사는 사신단 일행의 규모와 입국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상관인 신시라 이하의 일본 측 인사와 유구국 사신단 일행을 합쳐 2백 19인이 성종 10년 5월 3일 염포(울산)에 입항했으며, 여기에는 김비을개(김비의)·강무·이정 등 3인의 제주도 출신 표류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어서 상관인 신시라가 자신들이 김비의 일행을 데려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상관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박다(博多) 사람인데, 지난 정유년 10월에 부관인과 더불어 흥판(興販)으로 인하여 유구국에 갔다가 마침 귀국의 표류인이 도착하여 정박하고 있는 것을 만났는데, 국왕이 서계를 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압래하라고 하였으므로, 무술년 7월 28일에 배를 출발시켜 나왔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박다(현재의 후쿠오카) 출신 신시라 일행은 장사를 목적으로 1477년(성종 8) 10월에 유구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마침 조선인 표류인이 머물고 있었고, 유구국 국왕은 신시라 일행으로 하여금 이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갈 것을 요청해, 1478년(성종 9) 7월 28일에 출항했다고 한다. 상관인 신시라 일행이 조선에 도착한 시기는 1479년(성종 10) 5월 3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유구국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약 10개월 이상이 소요된 셈이다.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데, 신시라는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저간의 사정을 밝히고 있다.

본년 9월에 대내전(大內殿)이 소이전(小二殿)과 서로 싸워서 대내전이 싸움에 이기고, 축전주(筑前州)와 풍전주(豐前州)를 취하여 대관(代官)을 보내서 이를 지키게 하였고, 소이전은 싸움에 패하여 비전주(肥前州) 등지에 도망가서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478년(성종 9) 9월에 일본 국내 세력 간에 충돌이 있었음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일본 내부 사정으로 조선으로의 출항이 늦어졌음을 설명하면서 유국 사신단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선위사 이척이 올린 장계의 두 번째 파트는 제주도 표류민 김비의 본인의 증언을 통해 표류하게 된 상황을 비롯해 요나구니와 그 주변 섬들, 그리고 유구국 체류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증언에 따르면 제주 출신인 김비의 일행은 현세수·이청밀·김득산·양성석·조괴봉 등과 비거도선을 타고 육지로 향하던 중 추자도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표류 과정에서 김득산은 병사하고 현세수·이청밀·양성석·조괴봉 등은 섬 정착을 시도하다가 배가 부서져 익사했으며, 김비의 등 3인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⁹⁾ 이후 김비의 일행은 운 좋게도 고기잡이배를 만나 그들의 섬(요나구니)에 기거

9) 『성종실록』 권104 성종 10년 5월 16일(신미) 金非乙介·姜茂·李正言 ‘我等濟州人 去丁酉年二月初一日 受進上柑子 與州人玄世守·李靑密·金得山·梁成石伊·曹恠奉, 騎鼻居刀船 到楸子島 遭風西向漂流 第七〔日〕 南向漂流 第十一日 金得山飢病死 第十四日 朝 將泊一島船敗 玄世守·梁成石伊·李靑密·曹恠奉等溺死 我等緣崖不死.’

하게 된다.

마침 고기잡이배 두 척을 만났는데, 수상막(水上幕)으로 싣고 돌아가서 죽(粥)을 끓이어 먹이고, 제 16일에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윤차(輪次)로 밥 먹여 주었습니다. 섬 이름은 윤이(允伊)라 일컫고...

고기잡이배를 만나 겨우 목숨을 부지 한 뒤 고깃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윤이(允伊)’라는 섬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는 기사로, 제주도를 떠난지 16일 만의 일이라고 적고 있는데, 8인 가운데 5명이 사망하고 3인만이 살아남았다.

표류로부터 윤이(요나구니) 섬에 이르기까지의 설명 이후 김비의 일행의 증언은 윤이 섬으로부터 유구국 수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거쳐 갔던 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비의 등은 최초로 머물렀던 윤이 섬에서 6개월을 머문 뒤, 소내도(所乃島)로 이동해서 5개월을 체류하고, 패돌마도(悋突麻島) 1개월 → 발내이도(勃乃伊島) 1개월 → 후이시마도(后伊是麻島) 1개월 → 탈라마도(脫羅麻島) 1개월 → 이라파도(伊羅波島) 1개월 → 패라미고도(悋羅彌古島) 1개월을 체류하다가 유구국으로 들어가 3개월을 체류했다.

<표 3> 윤이 섬에서 유구국으로의 이동

섬 명	윤이	→	소내도	→	패돌마도	→	발내이도	→
이동 시간	이틀 낮 하루 밤		하 루		이 동		하 루	
체류 기간	6달		5달		1달		1달	

후이시마도	→	탈라마도	→	이라파도	→	패라미고도	→	유구국
하루 낮 하루 밤		하 루		하 루		사흘 낮 이틀 밤		
1달		1달		1달		1달		3달

한편 김비의 일행은 유구국 도성에 도착한 뒤에 일본 상인 신시라 등을 만났고, 그 가운데 조선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그들이 체류하고 있는 유구국의 현재 사정에 대해 소개받기도 했다. 그 무렵 유구국에서는 국왕이 사망하고 어린 아들을 대신해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유구국을 떠난 일행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입국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보고 내용이다.

지금 온 박다의 왜인 신시라 등이 출송(出送)을 하여 나흘 밤낮 만에 살마주(薩摩州)에 이르러, 한 달을 머물고서 배를 출발시켜 이틀 낮 이틀 밤을 가서 빙골(氷骨)에 이르렀으며, 육지로 이틀을 가서 박다에 도착하였습니다. … 다섯 달을 머물고 배를 출발하여 하루를 가서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3일을 머물렀으며,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 두 달을 머물다가 금년 4월 초 9일에 배를 출발하여 이번 5월 3일에 염포(鹽浦)에 도착하였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신시라 일행은 1478년(성종 9) 7월 28일에 유구국을 떠난 뒤 살마주(1개월 체류) → 빙골(육로 이틀 이동) → 박다(5개월 체류) → 일기도(3일 체류) → 대마도(2개월 체류) → 염포 등의 여정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박다에서의 체류 기간이 5개월이나 되었는데 이는 대내전과 소이전의 무력 충돌로 인한 정정 불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⁰⁾

김비의 일행이 여나국에 도착한 이래로 유구국과 일본 박다를 거쳐 조선 염포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유구국에서 조선에 이르는 여정

점 명	유구국	→ 살마주	→ 빙골	→ 박다	→ 일기도	→ 대마도	→ 염포
이동 시간	나흘 밤낮	이틀 낮 이틀 밤	육로 이틀	하루			
체류 기간		1개월	잠시	5개월	3일	2개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류민 김비의 일행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성종 10년 5월 16일 조 기사는 선위사 이척의 장계를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척의 장계는 염포에 들어온 유구국 사신단의 인솔자와 규모를 비롯해 이들과 함께 귀국한 표류민 김비의 등의 표류 및 귀환 사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0) 『성종실록』 권104, 성종 10년 5월 16일(신미) “聞大內殿, 與小二殿相戰, 小二殿戰敗遁去, 大內殿軍士, 散住諸家, 一日見江上懸人首四, 又一日梟首二, 問之則曰 彼梟首者, 乃小二殿人也.”

2) 홍문관 기록 ; 『성종실록』 10년 6월 乙未條 기사

성종은 유구국 사신을 접대하는 선위사 이척으로부터 김비의 등의 표류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은 뒤,¹¹⁾ 김비의 등의 체험이 기이하다며 홍문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상황을 기록하게 했다.

표류했던 제주 사람 김비의·강무·이정 등 세 사람이 유구국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지나온 바 여러 섬의 풍속을 말하는 것이 매우 기이하므로, 임금이 홍문관에 명하여 그 말을 써서 아뢰라고 하였다.¹²⁾

홍문관에서 김비의 일행의 표류 사실을 적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기사이다. 일반적이라면 이척의 장계를 보고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록은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성종 개인의 호기심으로 홍문관을 통해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기게 한 것이다.

따라서 홍문관 기록은 앞의 장계를 정리한 기사와는 다소 다른 형식을 갖게 되었다. 앞의 기사는 상황 전반을 포괄하는 형태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즉 유구국 사신단과 관련한 정보를 비롯해 표류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체류했던 섬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리고 이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홍문관 기록은 추가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 곧바로 처음 표류 시점으로부터 요

11) 『성종실록』 권104, 성종 10년 5월 16일(신미)

12)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 6월 10일(을미)

나구니 및 주변 섬에 머물며 경험하고 관찰했던 사실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러면 홍문관에서 정리한 김비의 진술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표 5> 홍문관 기록의 구성

연번	증언 내용
1	표류~고기잡이배를 만나 윤이섬에 들어가기까지
2-1	윤이시마(閔伊是麼) 섬과 관련한 30항목
2-2	소내시마(所乃是麼) 섬 11항목
2-3	포월로마이시마(捕月老麻伊是麼) 섬 8항목
2-4	포라이시마(捕刺伊是麼) 섬 7항목
2-5	홀윤시마(歟尹是麼) 섬 6항목
2-6	타라마시마(他羅馬是麼) 섬 6항목
2-7	이라부시마(伊羅夫是麼) 섬 7항목
2-8	먹고시마(覓高是麼) 섬 8항목
2-9	유구국(琉球國) 수도 22항목
3	살마주 등 일본국 체류 및 염포 입항 사정

위 표는 홍문관 기록을 표류 및 구원, 요나구니와 주변 섬들 및 유구국 체험, 귀국 과정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신들이 표류 및 구원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앞서 이 척의 장계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비의 등 8인이 곁 진상을 위해 정유년(1477, 성종 8) 2월 1일 제주도를 출발해 추자도를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출발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어떤 섬 주변에 이르러 정박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가

난파되어 김비의·강무·이정 세 사람만 판자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고기잡이 배를 만나 구조를 받고 윤이 섬(요나구니)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아래부터는 윤이 섬 이하 유구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들이 거쳐 간 섬들과 그곳에서의 관찰 및 체험을 정리한 것이다.

① 윤이 섬 체류(6개월)

홍문관 기록 가운데 윤이 섬 부분은 분량이 가장 많다. 나머지 섬에 대한 기록은 이에 준해서 정리하고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윤이 섬에 대한 증언이 상세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김비의 일행을 구해준 고기 배가 윤이 섬 출신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로서 윤이 섬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곳에 대한 기억이 보다 특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구국을 포함해 이들이 체류한 9개 섬 가운데 이 섬에서의 체류 기간이 6개월로 가장 길었던 점도 증언을 풍부하게 했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며 체류했던 최초의 섬이자 장기간 동안의 생활은 낯선 문화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김비의 일행의 윤이 섬에 대한 증언은 낯선 문명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시선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비의 일행은 조선인들의 생활 문화에 기초해 생명을 구원해 준 감사하면서도 낯선 윤이 섬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증언을 했고, 홍문관에서는 이를 총 30개의 항목으로 정리했다.

<표 6> 윤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장신구	남녀 모두 귀 걸이 착용과 그 방식
2	신발	신지 않음
3	머리 장식	남성의 머리 장식과 수염 형태, 여성의 머리 장식
4	식기	흙을 개어 햇빛에 말린 용기 사용, 5·6일이면 파열
5	주식	쌀을 주로 먹음. 조(粟)가 있으나 즐기지 않음
6	밥	주먹밥 형태로 만들어 손바닥에 나뭇잎을 엮어 놓고 먹음
7	국	간장 등 염장(鹽醬)은 없음, 바닷물과 채소로 국을 끓임, 바가지 사용
8	술	탁주 음용, 청주는 없음. 바가지로 술을 마시고, 수작(酬酌)의 예가 없음. 안주로는 나물, 마른 물고기, 회 등을 애용
9	떡	떡 - 보구(디딜방아)로 찢어 만듦
10	가옥	가옥-내실이 없고 창이 없는 1실, 띠를 사용, 기와·울타리 없음, 나무 침대 사용, 이불과 요 대신 포석을 사용, 창고가 있고 안에 벼를 쌓아둠
11	모자	관대(冠帶)가 없고,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승립(僧笠) 형태의 삿갓 같은 모자
12	의복	의복-삼(麻)·목면(木綿)·양잠(養蠶)이 없고 모시(苧)를 사용, 직령(直領) 형태의 의복, 남청(藍靑)색 염색, 백포를 활용한 속옷, 여성은 속치마를 입고 속옷이 없으며 푸른색 염색 치마 착용
13	가축	쥐·소·닭·고양이가 있으며, 소와 닭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물어 줌. 소와 닭의 식용을 권유했으나 침을 뱉으며 비웃음.
14	산	산에 재목이 많고 잡수(雜獸)가 없음
15	새	비둘기와 황작(黃雀)이 있음
16	곤충	거북·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박쥐·벌·사마귀·잠자리·지네·지렁이·개똥벌레·게
17	철야(鐵冶)	쟁기는 없고, 작은 삽을 사용해 조를 심음, 수전(水田) 농경과 2

	및 농경	기작, 수확 전에는 근신, 수확 후에는 작은 피리로 연주, 수호가 한 벼를 대나무 막대기로 탈곡하고 디딜방아로 찧음
18	농기구 및 무기	낫·도끼·무자·작은 칼 사용, 궁시·부극은 없고, 창을 구비하고 상용
19	장례	시신을 관에 얹혀 언덕 석굴에 두고 흙으로 덮지 않음, 넓은 석굴에는 여러 구의 시신이 담긴 관을 함께 넣음
20	기온	겨울에도 서리와 눈, 얼음이 없고, 초목이 마르지 않음, 홑옷 두 벌을 입다가 여름에는 하나만 입을 정도의 기온
21	채소	마늘·가지·참외·토란·생강이 있고, 가지의 경우 매우 크고 생존기간이 길
22	나무	오매·뽕나무·대나무가 있음
23	과실	청귤과 작은 밤, 굴은 四時로 꽃이 피
24	조명	등촉은 없고, 밤에는 대나무를 엮어 횃불을 피움
25	화장실	뒷간이 없어 들에다 볼 일을 봄
26	직조(織造)	베를 짤, 성서·승수·추세는 비슷하지만 다른 기계는 우리와 다름
27	우물	땅을 파 우물을 만들고 바가지와 병으로 물을 길음
28	선박	키와 돛대만 있고 노는 없음, 순풍에만 돛을 달
29	풍속1	도적이 없음, 다툼이 없고 어린아이가 울더라도 손을 대지 않음
30	풍속2	추장이 없고, 문자를 모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음

② 소내 섬 체류(5개월)

소내섬은 김비의 일행이 윤이섬 다음으로 오랜 기간 체류한 섬이다. 이 섬은 좁고 긴 형태로 둘레가 약 45일정(日程)으로 추정되며, 이곳의 언어·음식·의복·거실(居室)·풍토 등은 윤이 섬과 같았고, 손님으로서의 자신들에 대한 대우 역시 윤이 섬에서와 같았다고 회상했다. 아래는 소내 섬과 관련해 이들이 소개한 내용이다.

<표 7> 소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장신구	부인은 코를 뚫어 조그만 나무를 꿰고 정강이에 푸른 구슬을 두름
2	주식	벼와 조(벼의 1/3)
3	수확	벼 수확 후 나락을 빈 터에 높이 쌓아 둬, 4,50여개의 마을에 모여 생활
4	가축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개 등을 기름, 소를 먹으나 닭은 먹지 않음
5	사냥	산에서 산 돼지를 사냥, 사냥에 참여한 사람만 먹음,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면 다시 사냥이 어렵다는 이유
6	과실	유자·작은 밤·도토리
7	채소	토란·치과(冬瓜)·생강·마늘·가지·박
8	산	재목이 많아 무역을 하기도 함, 두어 길(丈)의 동백 나무에 꽃이 피م
9	마	길이가 한 자(尺) 남짓하고 사람의 몸 크기
10	새	까마귀·비둘기·바다가마우지·갈매기·해오리·황작
11	곤충	모기·파리·두꺼비·개구리·뱀·달팽이, 달팽이를 삶아 먹고, 뱀이 서까래 만큼 큼, 구렁이를 무서워하지 않음

③ 포월로마이 섬 체류(1개월)

포월로마이섬은 땅이 평평하고 넓으며 산이 없고 모래와 돌로 된 섬으로, 섬 둘레는 소내도 보다 조금 작다고 한다. 그밖에 언어와 의복·거실·풍토는 윤이 섬과 같으며 자신들에 대한 접대 역시 비슷하다고 회상했다.

<표 8> 포월로마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곡물	논과 벼가 없어 소이도에서 무역해 옴, 기장·조·밀·보리 재배
2	농경	우분(牛糞)을 사용해 밀·보리를 재배, 2·3월 추수 후 9종 곡식을 심고, 또 10월에 파종, 2·3월에 수확 후 다시 파종해 7,8월에 수확
3	새	비둘기·황작·갈매기
4	가축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 소는 먹으나 닭은 먹지 않음
5	채소	가지·토란·마늘·박
6	장신구	귀를 뚫어 푸른 구슬을 달고, 목에도 푸른 구슬을 걸음
7	건축	재목이 없어 소이도에서 가져와 집을 지음, 과일 나무도 없음
8	곤충	모기·파리·달팽이가 있고 달팽이를 삶아 먹음

④ 포라이 섬 체류(1개월)

포라이섬은 땅이 평평하고 넓으며 산이 없고 섬 둘레는 2일정 정도이다. 40호 남짓의 인가가 있고, 언어와 의복·거실·풍토 및 접대 양상이 대체로 윤이 섬과 같았다.

<표 9> 포라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장신구	남녀가 푸른 구슬로 팔과 정강이를 두름
2	새	비둘기·황작·갈매기
3	곡물	기장·조·밀·보리, 벼는 없고 쌀은 소내도에서 무역해 옴
4	가축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고, 소는 먹지만 닭은 먹지 않음
5	채소	가지·토란·마늘·박

6	건축	재목과 과일나무가 없음
7	곤충	모기·파리, 거북이·뱀·두꺼비·개구리는 없고, 나머지는 윤이와 같음

⑤ 흘운 섬 체류(1개월)

흘운 섬은 땅이 평평하고 넓고 산이 없으며 섬 둘레는 1일정 정도이다. 언어·음식·의복은 윤이 섬과 같았다.

<표 10> 흘운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곡물	기장·조·밀·보리, 벼는 없고 쌀은 소내도에서 무역해 옴
2	새	비둘기·황작·갈매기
3	가축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고, 소는 먹지만 닭은 먹지 않음
4	채소	마늘·토란
5	건축	재목이 없음
6	곤충	모기·파리·달팽이가 있고, 달팽이를 삶아 먹고, 나머지는 윤이와 같음

⑥ 타라마 섬 체류(1개월)

타라마섬은 평평하고 산이 없고 둘레는 1일정 정도이며, 50여 호가 살고 있고 언어·의복·거실·풍토가 윤이 섬과 같다.

<표 11> 타라마 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	----	-------

1	곡물	기장·조·밀·보리, 벼는 없음
2	건축	재목·과일나무가 없음, 소내도 혹은 이라부도에서 가져옴
3	의복	저포(苧布) 사용, 남색을 물들여 두드려 옷을 만드는데 채단(綵段)과 같은 빛깔
4	새	비둘기·황작·갈매기
5	곤충·가축	앞의 섬과 비슷
6	채소	마늘·토란

⑦ 이라부 섬 체류(1개월)

이라부 섬은 둘레가 2일정 정도이며, 언어·의복·거실·풍토가 윤이섬과 같으며 의복은 타라마섬과 같고 대접도 같다고 회상했다.

<표 12> 이라부 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장신구	부인은 큰 수정 구슬을 목에 걸
2	곡물	기장·조·밀·보리, 벼가 있지만 보리의 1/10 수준
3	건축	작은 산골짜기에 종려나무·뽕나무·대나무와 재목이 있음
4	가축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고, 소는 먹지만 닭은 먹지 않음
5	주류	쌀과 누룩을 사용해 술을 빚음
5	새	갈매기·해오라기·황작·비둘기
6	곤충	모기·파리·달팽이가 있고, 뱀은 없고, 팽이를 삶아 먹고, 나머지는 윤이와 같음
7	채소	마늘·토란·생강

⑧ 먹고 섬 체류(1개월)

먹고 섬은 땅이 평평하고 넓고 산이 없으며 둘레는 5,6일정

정도이다. 언어·의복·거실·풍토가 윤이 섬과 같으며 의복은 타라마 섬과 같고 대접도 같았다. 술을 빚는 방식은 이라부 섬과 같았고 벼·기장·조·밀·보리를 재배했다.

<표 13> 먹고 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식기	유구국에서 무역한 쇠솥(鐵鼎) 사용, 발은 없고 가마와 비슷
2	장신구	부인은 구슬을 목에 걸음, 이라부도와 비슷
3	화장실	뒷간이 없음
4	가축	집에 쥐가 있고, 소·닭·고양이를 기르고, 소는 먹지만 닭은 먹지 않음
5	새	새·비둘기·황작·갈매기·해오라기
6	곤충	거북이·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달팽이가 있고, 달팽이를 삶아 먹고, 나머지는 윤이와 같음
7	건축	종려나무·뽕나무·대나무, 산에는 이름을 모르는 잡목이 많음

⑨ 유구국 체류(3개월)

유구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풍량과 파도가 높아서 고생한 일을 적고 있다. 그리고 유구국의 통사가 와서 자신들의 출신과 표류 경위를 물어 국왕에게 보고했고, 이후 관인의 안내를 따라 객관(客館)에 머물르며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표 14> 유구국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館人의 접대 및 母后의 出遊	관인들의 우대, 국왕 모후의 출유 시 길에 나가 배알하자 술을 하사함, 어린 嗣君에게도 배알하고 술을 하사 받음
2	7월 15일의 축제	사찰에서는 화려한 幢蓋 제작 후 왕궁에 바침,

		국왕은 잡희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
3	왕궁 전각 모습 & 人家 형태	왕이 거처하는 높은 전각, 蓋瓦와 板屋으로 만든 민가
4	남녀 머리 모양, 의복, 수령 복장	상투를 이마의 가장자리로 틀어 올림, 백저(白苧)로 만든 의복, 부인은 백저포 적삼·치마·장옷 착용, 수령은 의대를 하고 출타 시 여러 명의 從者가 수행하는 말을 탐
5	논과 밭 경작 방식	밭이 논보다 조금 많음, 논과 밭 모두 2기작
6	음식	주식(쌀), 염장 사용 국, 채소 섞은 고기
7	술	청주, 탁주, 납병 사용, 은술잔, 남만국의 술
8	사찰 건물과 승려 의복	황금 불상, 승복을 입은 승려
9	식기(食器)	옻 칠한 목기, 작은 자기, 자접, 나무 젓가락, 숟가락은 없음
10	시장	채단·중백·저포·생저·빚·전도·바늘·채소·어육·소금·젓갈 판매, 남만국의 물품들(비판·면포·단향 등) 판매
11	중국 상인 출신 거주민	화려한 집에 거주, 김비의 일행에게 모자(감투) 제공
12	신발	맨발
13	통사	반드시 그 나라에 있는 일본인이 많음
14	장사치	강남인&남만국인 출신인
15	무기류	활·화살·도끼·갈고리·도검·무자·자·삽·갑옷·투구
16	軍士 복장	철로 정강이를 싸고
17	기후	윤이와 같음
18	건축 재목	소나무·종려나무·대나무·잡목(이름 모름)
19	가축 & 새	집에 쥐가 있고 말·소·염소·고양이·돼지·개·닭·집비둘기·거위·오리를 기르, 말과 소를 먹거나 시장에 팔, 닭을 먹음, 까마귀·까치·황작·매·제비·갈매기·바다 가마우지·올빼미가 있음
20	과실	매화·복숭아·유자·청귤
21	채소	토란·가지·참외·동과·무·파·마늘·아욱·박·파초
22	곤충	모기·파리·두꺼비·개구리·거북·뱀·달팽이·벌·나비·

		사마귀·잠자리·등에·연가시새끼·지네·거미·매미·빈대·지렁이·개똥벌레·메뚜기 모양의 큰 곤충을 먹거나 매매, 박쥐
--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종실록』 10년 6월 乙未條의 홍문관 기록은 선위사 이척의 장계와 비교할 때 김비의 일행의 표류로부터 귀국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충실하게 복원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를 떠난 뒤 풍랑을 맞아 목숨을 구조받게 된 사정, 윤이 섬에 체류하며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타국·타문화의 생경한 모습들, 이후 유구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쳐 갔던 7개 섬에서의 생활, 유구국 도성에서의 생활, 그리고 유구국을 떠나 일본을 거쳐 조선 염포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성종실록』에 수록된 김비의 일행의 표류 기사들, 즉 이척의 장계와 홍문관 기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두 기록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으로 김비의 일행의 표류를 일종의 변고로 보고, 그 같은 변고가 일어난 경위를 왕께 아뢰는 보고서이자 공문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이척의 장계가 염포에 들어온 유구국 사신단을 접대하며 함께 온 김비의 일행의 표류 사실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사정을 간략하게 적고 있다면, 홍문관 기록은 김비의 일행이 표류와 환국 과정에서 어떤 섬들을 거쳤고 또 체류했던 섬들의 사정은 각각 어떠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유구국과 그 주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기록 과정에서 표류민 김비의 일행의 주관적 감정들은 배제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으로 기록되었다. 이들이 유구국에서 체류했던 곳은 유구국을 포함해 모두 9곳이었다. 제일 남쪽의 윤이 섬으로부터 북쪽의 유구국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매우 다양한 상황들을 증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수록된 기록들은 대체로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다. 섬의 형태·면적·이웃 섬과의 거리·섬의 산물과 주민들의 의복 및 생활 모습·산물·농경 방식 등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홍문관 기록에서 이 같은 양상이 두드러진다. 아무래도 국왕께 아뢰는 보고서이자 공문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만큼 정형화된 형태로 기록해 독자인 국왕과 관료들의 수월한 이해를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김비의 일행의 증언 과정에서 언급된 많은 이야기들이 사장되어 매우 건조한 방식의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비의 일행의 각 섬들과 유구국 체류 경험을 정리한 홍문관 기록은 15세기 후반 유구국과 그 주변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김비의 일행의 주관적 증언과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왜곡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홍문관 기록은 이국적 환경 및 타문화에 대한 생경한 경험들을 몇 개의 분류체계에 입각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15세기 후반의 윤이 섬 및 유구국에 대한 사정과 이들을 바라보는 조선 주민들의 시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에 귀국한 김비의 일행에 대해서는 실록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정으로부터 비교적 후한 대접을 받으며 고향 제주도로 돌아갔다.

표류인 김비의 등 세 사람을 제주로 송환하고 명하여 2년의 역사(役使)를 면제해 주었으며, 반년의 녹료(祿料)와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過海糧]을 지급하고, 또 각기 저고리와 직신 철릭포(直身帖裏布)·직신 철릭(直身帖裏) 각각 하나씩을 내려 주게 하였다.¹³⁾

위 기사는 홍문관 기록이 남겨진 시점으로부터 약 10일 뒤의 기사이다. 조정에서는 극적으로 생환한 김비의 일행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역(役)을 면제시키고 약간의 돈과 의복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김비의 일행이 1477년(성종 8) 2월에 출항해 표류했다가 1479년(성종 10) 5월에 귀국한 다음 같은 해 6월에 고향 제주도로 돌아갔으니, 실로 2년 4개월 만의 귀향이라 할 수 있다.

13)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 6월 20일(을사)

4. 세조 대 표류민 양성·초득성 기사 분석

흥미롭게도 『세조실록』 세조 8년 2월 16일(신사) 조에는 두 사람의 유구국 표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나주에 사는 선군(船軍) 양성(梁成)이라는 사람의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나주 표류민 초득성(肖得誠)의 사례이다. 두 기록 역시 표류민의 체험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김비의 일행의 표류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유구국 표류와 관련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제주도 선군 양성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성은 1456년(세조 2) 1월 25일에 제주를 출발했는데,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2월 2일에 유구국의 북쪽 구미도(仇彌道)에 도착했다.

나주(羅州)에 사는 선군(船軍) 양성(梁成)과 금산(錦山)에 사는 사노비 고석수(高石壽) 등 10인이 병자년 1월에 제주로부터 배를 타고 오다가 구풍(颶風)을 만나 표류하여 유구국에 도착하였는데, 그 가운데 8인은 일찍이 이미 돌아왔고, 지금 유구국 사신 중[僧] 덕원(德源)이 양성·고석수를 데리고 왔으므로, 예빈시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였다. 임금이 양성 등을 인견하고 표류한 연유 및 지형·풍속을 묻고 좌승지 한계희(韓繼禧)에게 이르기를, "자세히 묻고 갖추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¹⁴⁾

14) 『세조실록』 권24, 세조 7년 6월 8일(정축)

위 기사는 제주 선군 양성의 표류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표류 후 5년 만인 1461년(세조 7)에 돌아오자, 세조는 그를 직접 만나 표류한 연유 및 지형·풍속 등을 물은 뒤, 승지로 하여금 그가 경험한 저간의 사정에 대해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세조의 명에 의해 작성된 기록은 『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 2월 16일(신사) 조에 수록되어 있다.

처음에 병자년(1457) 정월 25일에 선군(船軍) 양성(梁成) 등이 제주에서 배를 출발하여 바람을 만나서 2월 초 2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의 북쪽 방면 구미도(仇彌島)에 이르렀다. 섬 주위의 둘레는 2식 가량이었고, 섬 안에 작은 석성(石城)이 있어서 도주(島主)가 혼자 거주하였고, 촌락은 모두 성 밖에 있었다. 섬에서 그 유구국까지의 거리는 순풍의 뱃길로 2일 노정이었는데, 양성 등이 섬에 머무른 지 1개월 만에 공선(貢船)을 타고 그 나라에 이르러, 물가에 있는 공관(公館)에 거주하였다. ...¹⁵⁾

위 기사는 양성의 표류기가 시작되는 도입 부분이다. 제주를 떠난 양성이 태풍을 만나 유구국 북쪽에 있는 구미도에 이르게 된다. 이후 1개월 가량을 체류한 뒤 유구국으로 들어갔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는 양성이 유구국에 체류하면서 보고 느꼈던 일들을 왕성의 규모와 형세, 산과 들의 모양, 기르는 동물, 백성들의 가옥과 의복, 풍습, 가족 형태 등 31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표 15> 양성의 유구국 체류 보고

항목	분류	증언 내용
----	----	-------

15) 『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 2월 16일(신사)

1	節日·元日 풍속	祈禳 풍속-새끼를 문 위에 걸어 놓고, 나무 묶음을 쌓인 모래 위에 두고 떡 그릇을 얹음
2	7월 15일 풍속	절에 가서 승려의 독경 속에 죽은 부모의 명복을 빚
3	왕의 사령	노비는 일본인, 국왕의 친근한 使令들은 모두 사들인 자이거나 女國인이 노비로 바친 자들
4	工匠	鑄匠과 木手 뿐임
5	鋪陳(갈개)	포진은 莞草로 제작하거나 중국에서 사 옴
6	의복과 음식	남자는 直領을 입고, 여자는 조선과 비슷, 모든 사람들이 관이나 두건을 쓰지 않음, 신발은 없고 맨발로 다님, 소·말의 가죽은 관에 바치고, 수저가 없고, 薺草를 젓가락으로 사용
7	탈 것	남자는 말을 타고, 부인은 양타리를 내려 걸터 앉음
8	화폐	중국에서 가져 온 錢貨를 많이 사용, 10文이 쌀 1升
9	상인	일본 女國 사람들도 와서 교역
10	도량형	斗升은 조선과 비슷, 말(斗)는 5되·10되·30되 단위
11	시계	更點을 대궐 남문에 만들어 활용
12	朝會	지방 읍장들이 잔치상을 준비해 바치면 국왕은 이를 바라보고 신하들이 이를 먹음, 음악과 獻爵이 없음
13	迎詔勅禮	중국과 조선의 書契를 輦轎에 봉안하고 왕실로 맞아 들인 뒤, 왕이 絳衣를 입고 冠을 쓰고 절을 한 뒤 開讀함.
14	喪	국왕의 喪에는 백성들이 麻冠·麻衣를 입곡 곡을 하며 14일 만에 끝냄. 부모의 喪에는 족친들이 문상하고 망자는 白衣를 입음. 3일 뒤에야 고기를 먹고 7일 안에는 살생을 하지 않음
15	국왕과 백성의 장례	바위를 파서 壙을 만들고, 묘 앞과 양쪽 옆에 집을 짓고 묘를 지킴, 묘를 둘러 석성을 쌓음 백성의 장례는 광을 파서 관을 묻는 것은 비슷하나 묘 주변에 집을 짓거나 시묘는 하지 않음
16	婚嫁	남자 집에서 먼저 중매하여 혼사를 진행함

17	제사	제향이 없음
18	朝官	천거를 통해 등용, 유능하지 못하면 파출함하고 하사했던 물품을 회수함, 100여 인 정도가 상시로 대궐 안에서 정사에 참여하고, 入番하는 규정이 있음
19	도형 처벌	일본에서 딸려 간 자들이 왕왕 저지름, 국문·誅戮·유배 등의 처벌이 있음, 태형과 장형은 없고 사람 다리 위에 판자를 놓고 사람이 올라가는 형벌 집행
20	農桑1	여러 곡물이 있으나 팔·보리·녹두는 없음
21	農桑2	뽕나무·삼·목면은 없음, 生苧를 1년에 3번 수확
22	농경	쟁기를 사용하지 않고 삽을 사용함, 2기작
23	광물	금·은이 나지 않음, 南蠻·일본에서 사 옴
24	가축&새	소·말·돼지·닭·개가 있고 까마귀·참새가 있음, 앵무를 좋아해 중국에서 사 옴
25	산물	魚物이 많고 유자·귤·감이 있음
26	軍士	1백명이 교대로 숙직 함, 갑옷·투구·환도·방패·창 등이 본국과 다름이 없음, 拘라는 먼 곳의 죄인을 참형하는 병기가 있음
27	火筒	본국의 제도와 같음
28	弓矢	뽕나무로 활을 저사로 시위를 제작, 대나무로 활촉을 만들기도 함
29	交隣	중국·일본·국·女國과 통호, 자주하지는 않음
30	외국과의 거리	중국은 배로 7일 여정, 일본은 18일 여정
31	攻戰	동쪽의 지소도와 오시마도가 귀부하지 않아 오시마도는 토벌해 귀순한 지 15년이 되었고, 지소도는 아직 복종시키지 못함

양성이 표류해 처음 이르렀던 곳은 유구국의 북쪽에 있는 구미도(仇彌島)라는 섬이었다. 이곳에서의 체류 기간은 1달밖에 되지 않았다. 한 달 후에 유구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5

년이나 되는 그의 체류 생활은 대부분 유구국 안에서 이루어졌고 표류에 대한 증언들 역시 유구국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성의 진술은 유구국 궁성의 형태, 조회, 국왕의 영조칙례 및 상장례 등 국왕과 관련한 사안들이나 조관(朝官)의 등용, 군사의 직무, 무기 등과 같은 국가와 관계된 일에서부터, 일반 백성의 의복, 음식, 탈 것, 상장례, 농경과 같은 풍속과 가축, 광물, 농작물 등의 자연과 관련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체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관찰과 경험도 다채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초득성 표류기록을 살펴보겠다. 초득성의 경우 1462(세조 8) 1월 24일 나주에서 출발했다가 유구국 미아괴도(彌阿槐島)에 표류한 사례이다. 양성은 1456년(세조 2) 1월에 제주도를 떠났다가 표류한 것으로 초득성의 표류 보다 5년이나 빠른 셈이다. 다만, 귀국에 있어서는 초득성은 표류한 그 해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다시 말해 양성이 5년 간 유구국에서 체류했던 것에 비해 초득성은 표류 후 약 1년 정도 체류했다가 귀국한 경우이다. 양성의 귀국이 이렇게나 뒤늦은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양성이 조선에 돌아와 그의 표류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 작성될 때, 초득성 일행의 기록도 함께 포함시켜 같은 날짜에 기록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초득성(肖得誠) 등 8인이 금년 정월 24일에 나주(羅州)에서 배를 출발하여 2월 초 4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 미아괴도(彌阿槐島)에 이르렀다. … 4월 16일에 이르러 유구국 상선(商船)에 쫓아가 부탁하여 그달 27일에 본국(本國)에 도착하였다. 국왕이 궁내의 남쪽 행랑에다 두고 접대하였는데, 날마다 불러 보고 후하게 공궤(供饋)하였다. 7월 6일에 출발하여 돌아왔다.¹⁶⁾

위 기사는 초득성이 표류해 유구국에 머물다가 조선으로 돌아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기사이다. 초득성의 기사는 양성의 기록이 끝나는 뒷부분에 부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초득성 일행은 1463년(세조 8) 정월 24일에 나주에서 배를 출발하여 2월 4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 미아괴도(彌阿槐島)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4월 16일에 유구국 상선을 타고 유구국 본섬으로 들어가 후한 대접 속에 머무르다가 같은 해 7월 6일에 귀국을 위해 유구국을 떠났다고 적고 있다. 초득성의 경우 미아괴도에서 2달 남짓 생활하다가 유구국 본섬으로 이동해 3달 가량을 머물다 돌아온 경우이다. 표류에서 귀국까지 대략 5개월 정도인 셈으로, 양성이 약 5년 동안 유구국에서 체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초득성 일행이 체험한 유구국에서의 경험은 23항목에 걸쳐 정리되어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초득성 역시 유구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전하고 있다.¹⁷⁾

<표 16> 초득성의 유구국 체류 보고

항목	분류	증언 내용
1	城廓	3겹의 石城, 조선 도성의 높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음, 성은 曲水와 같이 구부러져 있음.
2	국왕의 전각과 시위 군사	단청을 입히고 지붕을 판자로 덮고 鷲頭마다 남으로 칠함, 군사들이 숙위함, 갑옷을 입고 시위함.
3	국왕의 나이	33세
4	국왕의 자녀	아들 4인, 장자 15세 나머지는 어림, 왕자들은 왕과 다른 거처에서 기거
5	옛 궁궐 & 국왕 행차	지금 궁궐과 비슷하며 때때로 사용

16) 세조실록27권, 세조 8년 2월 16일(신사)

17) 위의 주 참조.

		국왕의 행차 시 갑옷을 입고 무장한 시위군이 300명, 국왕은 교자 혹은 말을 탄, 국왕의 어린 세 아들은 대열 앞에, 장자는 대열 뒤에서 따름
6	국왕의 모자&복식	평소에는 紅白綃와 黑綃로 머리를 싸매고, 출입 시에는 倭笠 착용, 복식은 朝官과 비극
7	朝會	5일에 한 번씩 조회, 조관은 뜰에 들어가 합장하며 세 번 절함, 백성은 궁궐에 술과 生筍을 바침
8	주거	백성의 주거는 담장이 붙을 정도로 조밀, 인가에는 소나무와 종려나무를 즐겨 심음
9	의복	남녀가 같은 복장인데 왜복과 비슷하지만 바지를 입지 않음, 단자·사초·저포를 사용
10	풍속	칼 두 자루를 항상 차고 다님
11	신발	맨발, 특히 궁성 안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음, 성 밖에서는 倭鞋를 신지만 존장자를 만나면 신을 벗음
12	머리 모양	남자는 상투를 땅아 왼쪽으로 두고 여자는 상투를 땅아서 머리골 뒤에 둠, 冠巾을 쓰지 않지만 비가 오면 倭笠·종려 앞 氎衫·도롱이를 쓰기도 함,
13	녹봉	5일마다 조관의 녹봉 지급
14	창고	外城 안 창고와 內廩에서 큰 말 6필을 육성
15	酒造&軍器庫	강가 성에 酒庫房을 설치해 술을 주조해 저장, 군기고를 설치해 병장기 저장
16	곡류	다양한 종류가 있음
17	가축&새	소·말·닭·개와 노루·사슴이 있고, 제비·뾰꼬리·까마귀·빼꾸기·참새가 있음, 호랑이·표범은 없음
18	채소	파·부추·마늘·생강·무우·상치·파초·양하·토란·마
19	船隻	강가에 草舍를 지어 들여 놓음
20	시장	강가에 있으며 南蠻·일본·중국 상선이 와서 교역
21	외국과의 거리	정남쪽에 3개월 도정의 南蠻, 동남쪽에 5일 도정의 일본, 서쪽 20일 도정의 중국

22	도적	모두 주록,
23	산물	주로 魚物, 육지에는 배나무·밤나무·복숭아·종려나무·소나무·상수리나무·왜굴나무 등이 있음

초득성의 체험 역시 양성과 비슷하게 유구국 국왕 및 왕성, 유구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모습, 자연 환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양성에 비해 체류 기간은 짧았지만, 유구국 본섬에서 체류했기에 언급하는 주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다.

양성과 초득성의 기록과 김비의 일행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일단 그들이 표류민이었기에 그들의 귀환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기록이 작성되었고, 국왕의 특별한 지시로 승정원과 홍문관이라는 근시(近侍) 기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보고서와 공문서라는 형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주제들 역시 국왕이나 관료들이 유구국 관련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로 정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비의 일행의 기록은 유구국 본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8개의 섬에 대해서도 상세한 증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성·초득성의 기록과는 차이가 난다.

아무래도 김비의 일행이 표류하다가 최초로 이른 곳이 유구국의 여러 섬들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요나구니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요나구니섬이 유구국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고, 따라서 유구국 본섬까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김비의 일행이 유구국에 도달하는 과정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구국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있는 섬들에서 1개월 가량씩 체류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섬들의 체류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다시 기록으로 남겨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비의 일행의 증언에는 유구국 본섬의 국왕과 수도 주민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유구국의 변방에 위치해 있던 소박한 섬 주민들의 삶의 모습도 풍부하게 수록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윤이 섬을 비롯해 소내도(所乃島)·패돌마도(悖突麻島)·발내이도(勃乃伊島)·후이시마도(后伊是麻島)·탈라마도(脫羅麻島)·이라과도(伊羅波島)·패라미고도(悖羅彌古島) 등 조선 조정으로서는 당시까지만해도 별다른 정보가 없는 유구국 주변의 조그마한 섬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졌던 것이다.

5. 구비전승의 검토

기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자 사회라는 한정된 범위 내의 현상이기 때문에 문자 이전을 지칭하는 역사적이라는 말도 쓴다. 기록이라는 매체가 없는 삶의 진행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전달의 능력으로서의 기억이라는 문제를 고려하는 학문의 대상이 신화와 전설이다. 삶의 의미를 발굴해낼 수 있는 대상으로서 신화와 전설이 갖는 힘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처럼 살아 있는 구비 전승의 힘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구 1,700명의 요나구니 섬의 제주민 표류 구비 전승이다.

1477년 음력 2월 1일 13명을 태운 한 척의 배가 제주도 애월에서 출항했다. 목적지는 한양이고, 적재한 화물은 궁궐로 가는 제주도의 진상품인 굴이었다. 추자도 인근에서 만난 풍랑이 그들의 생사를 갈랐고, 2주일간의 표류 끝에 생존자 3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곳이 요나구니 섬이었다.

『성종실록』 1479년 5월 16일자와 6월 10일자 2회에 걸쳐서 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앞장에서 한 바 있다. 이러한 실록의 기록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정작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록에 남는 과정을 생각하면, 기록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의문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3인이 귀국하는 과정에 류쿠국에 보고한 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류쿠 쪽 기록인 『歷代寶案』에 의하면, 류쿠왕은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봉납하던 물건의 내용을 질문했고, 세 사람은 의논 끝에 쌀이라고 거짓 보고했다. 이처럼

기록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구비 전승이 있다면, 이는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요나구니에 구비 전승하는 이야기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요나하 나오코(70세)씨에 의해서 전해진 요나구니의 구비 전승은 일본 인류학자 안케이 유지 [安溪遊地]에 의해 ‘후가누토’ (미지에서 온 사람들, 2025년 3월)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¹⁸⁾ 이 책의 내용은 당대의 삶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전 인류학의 사례로는 백미 중의 백미임에 틀림없다.

핵심 제보자에 따르면, 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억하는, 2세 반부터 받은 훈련. 할머니와 같은 방에 살면서 전승의 기술이나 기도나 노래를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시험하고 맛보고 검증하는 날들. 먹는 것에 관계되는 샤면이었던 무토 ‘카마이’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많은 노인으로부터 받은 훈련의 하나가, 이 ‘후가누토’ 전승과, 그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다후’의 만드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섬사람들과의 평화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교류이다. 섬이라는 제한된 자연자원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아가던 요나구니섬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외래 문화의 충격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요나구니섬에서는 그 후의 수많은 전란이나 격동의 시대를 거쳐 아직도 이 행복한 만남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 절해의 외딴섬으로 생각되기 쉬운 15세기의 요나구니섬이 대만이나 남쪽의 섬들과의 인적 교류를 가지고 있던 것 등, 문헌 사료로부터 엿보였던 민중의 역사가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8) 핵심 제보자였던 요나하 상은 이 보고서가 작성되던 2025년 여름 유명을 달리 하였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그의 명복을 빈다.

문자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놀라운 기억력으로 남겨진 전승이 문자기록과 상세하게 대조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의해 날짜를 갖지 못한 구비 전승이, 1477년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날짜 즉 역사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전승의 주요 등장인물은, 정치와 종교와 자원 관리의 리더쉽을 취하고 있던 ‘무라누야’라고 불리는 한 여성 이었다. 이 시대에는 류큐의 정치권력도 종교적 권위도 아직 요나구니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00년, 이시가키 섬의 오야케아카하치가 슈리·미야코의 연합군에 패해, 1522년에는 요나구니 섬도 류큐 왕국에 복속되었다. 싸움에 패배해, ‘무라누야’를 잃은 요나구니 섬의 사람들은, 섬 밖으로부터의 통치의 아래에 놓였다. 섬이 독자적인 통치를 누리던 시대부터 멀리 떨어진 류큐의 지배를 받아 대만이나 그 이남의 섬들과의 교역도 금지되는 격변을 맞이한 것이다.

이에 안전하게 섬으로 건너가기도 힘든 이시가키 섬 관리들에게 요나구니 섬의 계절의 순환과 그에 따른 기도 등을 지시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 때문에 식량 생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기능마저 상실되었다고 생각된다. 계절의 순환을 읽고, 그에 맞추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섬의 생활이나 기도를 담당하는 지도자 없으면 섬의 생활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원래 ‘무라누야’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 중 류큐의 정치와 종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무토 즉 ‘카마이’의 새로운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류큐의 지배 후에는 사쓰마번으로부터 간접 지배를 받게 된 때로 요나구니 섬 사람들은 ‘후가누토’ 전승을 몰래 구전하기로 했다고 생각된다. 그 때는, 임금의 관리도, ‘카’라고 불리는 왕국이 임명하는 하는 신녀도 없었다. 내정·외교로부터 규범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에 이르기까지, ‘무라누야’가 섬의 생활을

담당하고 있던 시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전승으로서, '후가누야'의 이야기는 섬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구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전에 의하면, 표류하던 13인 중 5명이 도중에 실종되었고, 생존자들은 요나구니 섬에 접근하는 도중에 5명이 숨을 거두었다. 3명이 구조되었는데, 여추장에 의해 이들에게 첫번째 제공된 음식은 죽으로 만든 죽이었다. 몸을 회복한 이들 '후가누토'는 섬 사람들과 반 년 정도 시간을 보낸 흥미롭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진다.

손짓 발짓으로 시작된 소통 방식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이들에게 전한 지해도 전해진다. 표류되었던 시기 직후가 모내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모를 심어 보았고, 보름달 아래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가무의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그네를 가르쳐 주었으며, 19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던 연질 토기인 빠라나 토기에 직접 음식을 끓이는 방식의 위생 문제를 지적하고, 바나나 잎사귀에 조리할 음식을 싸서 찌는 방식을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각종 게임을 시킴으로써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던 주민들에게 경쟁 관념도 주입했다. 부분적으로는 요나구니에 후가누토의 자손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로빈슨 크루소』는 서구 문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허구적 창작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스코틀랜드 선원 알렉산더 셀커크의 1704년 체험을 그 모티브로 하고 있다. 항해 탐험과 상업 활동이 활발하던 1719년에 나온 이 소설은 영국 제국주의를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계몽기의 신채호는 “『로빈슨 표류기』와 같은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겨서 국민의 모험심을 격려하는 방법도 있다” 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해양 문화적 성격이 탐험이나 모험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반증한

다. 물론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제국주의에 대한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¹⁹⁾

이러한 모험담이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 후기 표해록의 인식과는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음이 틀림없다. 크루소와 프라이데이의 관계는 식민지인을 문명화시켜 노예로 삼는다는 당시의 식민관을 그대로 담고 있다. 프라이데이가 본래 이름을 잃고 지배자에 의해 새로운 이름을 얻음과 동시에 로빈슨 크루소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인’으로 행세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오직 절대 충성만이 존재한다. 문명화한 원주민의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유럽인들의 환상은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²⁰⁾

물론 관점을 바꾸어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방드르디 혹은 태평양의 끝』이라는 소설은 『파리대왕』이 나온 지 23년 뒤인 1967년 프랑스의 미셀 투르니에가 쓴 것이다. 방드르디란 프라이데이의 불어식 이름으로 이 소설이 원주민 노예 프라이데이의 시각에서 쓰여졌음을 암시한다. 그는 크루소와 반대되는 순수를 상징하여 디포식 서양문화를 무너뜨리고 태양도시를 찾아간다는 식으로 결말이 나지만, 기존 발상은 역시 로빈슨 크루소를 벗어 나지 못한다.²¹⁾

결국 지금까지 살펴 본 실록의 기록이 체류민의 시각으로 사건과 경험을 정리한 것이라면, 구비전승의 기록화는 원주민의 시각으로 사건과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사건은 일치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양 기록이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구비전승의 내용을 핵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19) 김경섭 역, 한창훈 해제, 대니얼 디포, 『로빈슨 크루소』, 글누림, 2011.

20) 한창훈,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2009.

21) 미셀 투르니에 저, 김화영 역,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민음사, 2003.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1. 옛날 옛날 요나구니 섬에서
- 1.2. 고양이와 닭이 떠들썩하다
- 1.3. 바다에서 만난 남자들
- 1.4. 모두 함께 해변으로 향하다
- 1.5. 썩을 모으다 : 닭과 고양이를 먹여 살리자
- 1.6. 첫 식사
- 1.7. 집을 지어 주겠다
- 1.8. 신체검사와 영혼의 건강
- 1.9. 속옷(앗빠)와 함께 하는 기모노 체험

- 2.1. 후가누토 이야기
- 2.2. 다섯 명의 동료가 죽었다
- 2.3. 다섯 명의 동료를 위해
- 2.4. 울면서 굴꽃에 귀를 기울이다
- 2.5. 병에 걸렸을 때

- 3.1. 조수간만의 차를 측정하고 날짜를 세어보기
- 3.2. 정월에 그림을 그리다
- 3.3. 물과 화장실과 불
- 3.4.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 3.5. 물고기를 보고 놀란다
- 3.6. 산에 들어갈 때의 약속
- 3.7. 날씨를 읽다
- 3.8. 바다와 산을 한 냄비에 담다
- 3.9. 금방 깨지는 뚝배기와 그 개선
- 3.10. 야자 잎 냄비 만들기

- 3.11. 새로운 절임의 맛
- 3.12. 과일의 과즙과 껍질을 살리다
- 3.13. 콩나물과 발효의 힘
- 3.14. 생선을 으깨서 먹는다
- 3.15. 향기를 즐기다
- 3.16. 큰 다툼과 짝사랑
- 3.17. 소도 새도 먹을 수 없다
- 3.18. 쥐를 쫓다

- 4.1. 바쇼포를 가르치다
- 4.2.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 4.3. 밧줄을 매다 : 새로운 바구니 만들기
- 4.4. 빗자루와 대나무 칼과 대나무 꼬치 그리고
- 4.5. 아이들과 즐겁게 놀기
- 4.6. 요람
- 4.7. 대만에서 온 소녀
- 4.8. 다양한 경쟁 놀이
- 4.9. 숫자 세기 놀이
- 4.10. 유쾌한 동료

- 5.1. 벼베기 오리코산
- 5.2. 쌀과 밥과 떡의 친구 맞추기
- 5.3. 아침을 맞이하다 - 물고기에게 기도하다 - 장례식 이야기
- 5.4. 정월에 세워진 돌에 기도하기
- 5.5. 불에 기도하다
- 5.6. 달빛의 찢어짐

- 6.1. 배와 밧줄 준비

- 6.2. 여행의 준비와 고양이에게 감사하는 마음
- 6.3. 출발과 이별
- 6.4. 파도를 넘어
- 6.5. 세 사람을 쫓아다니는 젊은이들
- 6.6. 소식을 받는 나무를 심어라
- 6.7. 무라누야의 출발
- 6.8. 알을 품은 닭²²⁾

2025년도에 책의 형태로 정리된 이 구비 전승은 요나구니 섬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해 내려온 것이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채, 옛날에 있었던 일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섬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마리가 나오면 누구나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한다.

문제는 이런 구비 전승이 핵심 제보자 이외에는 전승자를 찾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제보자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다이쇼 시대 중반 이후 출생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고’, ‘지금은 섬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제보자가 성장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줄 확실한 사람은 점점 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기도도 하고 일기도 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제보자에게 이 구비전승을 이야기해 주셨던 마지막 어른도 돌아가신 후, 2007년 책장을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서 종이 6장이 떨어졌는데, 그 종이를 보니 학교에서 처음 글을 배운 제보자가

22) 1.1. -1.9. 와 6.1. - 6.8.의 구비 전승은 ‘후가누토’가 요나구니 섬에 표착하는 과정과 이후 떠난 뒤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기존 문헌 표류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이의 한국어 번역을 <첨부 2>에 부기한다.

쓴 표류민 이야기였다. 이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인류학자 안케이 교수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종이에 적힌 3명의 표류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이 이후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 씩 계속 이야기하고 녹음하고, 글로도 써 보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 원래 화가였기에, 안케이 교수 부부의 권유로 그림도 그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케이 유지 교수에 의해, 이 구비전승이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체가 있는 구비전승임을 확인되고,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있던 전경수 교수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게 되었다.

안케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관련 역사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제보자의 기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청취와 기록에만 전념했다고 한다. 전경수 교수를 통해 실록 기록은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표류인과 그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소 감동적인 과정을 거쳐 요나하 나오키(70세)씨에 의해서 전해진 요나구니의 제주민 표류 구비 전승은 일본 인류학자 안케이 유지 [安溪遊地]에 의해 ‘후가누토’(미지에서 온 사람들, 2025년 3월)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정체와 그 이후의 과정을 알게 된 제보자도 다소 후련한 마음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지만, 사실 이 구비 전승이 일본과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간단치 않다.

생존자 3명과 사망자 5명으로 구성된 표류민은 당시 요나구니섬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동북아시아에서 온 타향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 결국 곁의 하얀꽃이 향수병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유일한 곳, 제주도가 바로 그들의 고향이었음을 요나구니에서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거의 알몸으로 표류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 생선 발효 식품에 대한 강

한 집착, 그네타기 등 제주도 문화의 향기가 곳곳에 배여 있다.

거꾸로 요나구니에서 소나 닭을 먹으려다 실패한 제주인들은 개와 창으로 잡은 멧돼지를 보고 기대에 부풀었지만, ‘사냥꾼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요나구니 특유의 인식을 알고 또 다시 먹지 못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타문화의 구체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섬 사람들의 평화로운 만남과 인간적인 교류이다. 섬이라는 한정된 자연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던 요나구니 사람들에게 문자로 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충격과의 기록이기도 한다. 절해의 외딴 섬으로 생각하기 쉬운 요나구니 섬이 대만이나 남쪽의 섬들과 인적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등, 문헌 사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민중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왜 전승이 핵심 제보자 한 명에게 집중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보자는 격동하는 시대적 배경과 그녀 자신의 건강을 들고 있다. 그러나 표류민과 함께 지냈던 시절에 대한 소소한 기억을 500년 이상에 걸쳐 이야기해 온 요나구니 섬 주민들의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표류민들과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살면서 그들의 영리함과 인간으로서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반한 요나구니 섬 사람들이 그들이 무사히 고향에 돌아와 부모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계속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제보자는 말한다. 이에 이제 약간 늦긴 했지만, 우리 제주도민이 답을 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6. 핵심 전승자에 관한 고찰

『후가누투 : 제주에서 요나구니섬으로 표류하는 류큐 유목민들의 구전 전통』으로 되어 있던 책에는 핵심 제보자가 와카란코 엔코 (WAKARANKO Nko)로 표기되어 있다. 프로필 정보에 의하면, 그는 1954년 3월 요나구니 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몸이 약해서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다. 농작물과 가축을 돌보는 가운데 4살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른들의 전승을 들으며 자랐고, 초등학교에서는 사투리 사용이 금지된 것에 저항하며 요나구니어를 계속 사용했다. 이시가키 섬의 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된 후 나하-시코쿠-교토-사가 등을 순회, 이윽고 요나구니로 돌아와 자연 소재를 살린 염색 직물의 공방을 운영하고, 노인들에게 배운 옛 섬생활의 지혜를 염직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2011년에 홋카이도로 이주, 2025년 여름 생을 달리했다. 그는 옛 요나구니 섬의 선조들처럼 주변의 모든 것에 깃든 생명을 마주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을 만들어 내었다. 홋카이도에서는 매년 시민 미술전에 출품하여 가까운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도시에 웃음을 전했다. 와카란카는 무용가로서 무대 이름이다.

구비전승과 관련하여 그를 심도 깊게 인터뷰 했던 안케이 교수에 의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훈련을 받았다.²³⁾ 할머니와 같은 방에 살면서 전승의 기술과 기도와 노래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시험하고, 맛

보고, 검증하는 나날들을 보낸 것이다. ‘먹는 일에 관련된 주술사’였던 ‘무토우 카하마이’가 될 것을 기대하며 많은 노인들로부터 받은 특훈의 하나가 ‘후가누토’ 전승과 그들이 몸에 익힌 일종의 속옷인 ‘앗빠’ 만드는 기술이라고 한다.



(후가누토가 알려준 속옷, ‘앗빠’. 안케이 교수 촬영 제공 2025)

이 전승의 주요 주인공은 요나구니의 정치와 종교, 자원 관리의 리더십을 담당했던 ‘무라누야’라 불리는 한 명의 여성 이

23) 이 점에 주목하여 이제부터 제보자라는 말 대신에 전승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요나구니 전통 기모노. 안케이 교수 촬영 제공 2025)

었다. 1522년 요나구니 섬이 류큐 왕국에 복속되면서, 이 구비전

승의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 시점을 시작으로 ‘후가 누토’ 전승과 ‘앗빠’의 착용한 모습은 섬 외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서는 안된다는 엄격한 금기가 시행되었다. 아마 이 구비 전승은 요나구니 섬 원주민에게 있어서는 대만과 그 남쪽의 섬들 과도 풍부한 교류를 유지했던 자랑스러운 자주 독립 시대의 섬 생활을 상세히 전하는 저항운동이 아니었을까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구비전승 과정의 케리컬처. 와카란코 그림. 안케이 교수 촬영 제공 2025)

전승자의 면담 자료는 광범위하다. 그 전모를 보여주는 자료는 별도의 출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구비 전승과 관련된 부분들만 따로 추려서 정리한다. 조사자는 일본 인류학자 안케이 교수다. 이 자리를 빌어 안케이 교수 내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남긴다.²⁴⁾

24)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안케이 교수 부부 내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연구팀에서는 안케이 교수 부부를 본 연구팀의 연구협력 및 자문으로 모셨고, 이를 흔쾌하게 수락하시어 추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안케이 교수의 프로필은 <첨부 1> 하단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전승자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를 들려 주었던 노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화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들려 주었던 노인들의 모습을 그렸다. 그 숫자만 보아도 이 전승은 적어도 그 당대에는 활발히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구비전승자 케리컬쳐. 와카란코 그림. 안케이 교수 촬영 제공 2025)

① 이 책의 내용은 요나구니 섬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해 내려온 것이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채, 옛날에 있었던 일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 주셨던 메이지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 덕택이다. 그리고 ‘이걸 버리면 안된다. 섬을 떠날 때는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마지막 어르신도 돌아가신 후 2007년 옛날 노트를 발견하고 다시 기억을 되살렸다.

② 할머니는 후가누토 때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푸른색 구슬 목걸이를 걸고 기도하는 춤을 추었다. 수수 경단을 처마에 거는

것은 여행자의 안전한 뱃길을 기원하는 요나구니의 오래된 풍습이다. 후가누토의 정월이라는 기도 의식이 있었다. 소노무라 북쪽 시키하마라는 작은 해변에 모여 산의 신-바다의 식-마을의 신의 각 방향에 세 개의 음식을 차려놓고, 후가누토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갔다는 소식이 언젠가 전해지기를 다 함께 기원했다.

배를 타고 등룡을 많이 띄우고 해안에서는 모닥불을 피운다. 섬 사람들은 후가누토의 무사함을 기원할 때, 바다에서 죽은 후가누토의 친구의 뭍도 따로 하나 만들어 소박하게나마 제물을 바치고 기도해 왔다. 후가누토의 뭍이 하나, 죽은 사람의 뭍이 하나, 바다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제사를 지낸다.

③ 중학교 3학년. 어르신들이 주머니에 모아둔 동전을 모아 섬의 가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을 골라 몸에 맞게 기모노를 바느질해 주었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후가누토를 위한 설날과 추석의 기도를 계속하기 위한 기모노였다.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모노 밑단에는 막 시작된 초경의 피와 고추 수액을 섞은 것을 발랐다. 그 색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한 표시였다.

한편 ‘앗빠’라고 불리는 후가누토가 입었던 속옷을 만드는 방법이 전승되고 있었다. 다섯 살 때쯤 처음 속옷을 만들어 주었고, 그 만드는 방법을 잊지 말라고 명령 받았다.

그 후에도 섬 사람들은 후가누토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품에 안겼는지 계속 걱정하였다. 언젠가는 반드시 소식이 있을 거라며 기다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④ 전승자는 연구자들에 의해 이 구비전승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전에는 전혀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이 지 시대에 태어난 섬의 어른들은 그림 편지를 사용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외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본인도 어릴 때 눈이 안 좋아서 매일 아침 어머니가 교과서를 낭독해주시면 귀로 듣고 외워서 학교를 다녔다.

⑤ ‘후가누토’ 3명은 길을 걸을 때나 산을 걸을 때나 발이 유난히 빨라 섬 안을 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어린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고, 납득할 때까지 물어 보았다. 그렇게 섬 사람들과 친해졌다. 즉 세 사람은 삶을 섬 사람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좋은 의미에서 무엇이든 보고 싶어 했고,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 다른 것 투성이였을 텐데,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⑥ ‘우가누토’가 있던 시절에는 섬에 한 명의 ‘무라누야’(마을의 부모)가 있고, 그 아래에는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카도닌누야’(이웃의 부모)와 젊은 이웃집 언니라 불리는 ‘카도나이누바니’라는 사람들이 도둑질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도 굶주리거나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소중히 여겨지도록 늘 신경을 써주었다.

⑦ ‘되묻거나 질문하지 말라’는 할머니의 엄중한 경고에도, 어린 마음에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는 의문은 들었다. 특히 모두의 이야기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후가누토’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언제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옛날 이야기이므로 그 역

사적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다.

⑧ 메이지 시대 출생자 수십 명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다이쇼 시대 이후의 섬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은 사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설은 너무 방대해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구비 전승은 당연히 요나구니 어(도난무누이)로 진행되었지만, 본토인들이 어려워하는 이 언어가 후투어(표준어)보다 나에게서는 쉬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겨우 전설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섬의 어르신들은 어떤 축하의 자리에서 구비전승의 한 장면을 모인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일을 시켰다. 평소에는 혼자서 막힘없이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다.

⑨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점점 저 세상으로 가시고 마침내 마지막 한 분이 남았을 때, 때마침 그 할머니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랬더니 ‘더이상 후가누토 이야기를 해서 너를 괴롭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할머니와 저는 왜인지 손을 잡고 눈물을 펄펄 흘렸다.

⑩ ‘후가누토’들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품에 안겼는지, 요나구니 섬 사람들은 계속 마음속에 품고 소식을 기다려 왔다. 언제부턴가 ‘후가누토’가 잊혀져 가는 가운데, 여러 이별의 자리에서 계속 불러져 온 노래가 있다. 바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바가리구리샤」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는 주로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로 남아 있다. 대략 ‘헤어지기 힘들지만, 영혼을 담아, 바람에 얹어 보낸다. 바람에 태운다’로 해석되는 가사로, 키우던 말과 작별할 때도, 소중한 사람이 섬을 떠날 때에도 불렀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내기 할 때, 이 노래를 끝없이 불러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다음의 사진은, 전승자가 ‘후가누토’ 전승을, ‘도-난무누이’ (요나국어)와 일본어의 대역으로 해서 쓴 총 10권의 노트중 1권 첫머리이다. 세 명의 남자들이 요나구니섬에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전체의 첫 이야기에 해당한다.

어릴 때부터 전승의 방대한 이야기의 다양한 버전을 그대로 기억해 버리는 훈련을 받아 온 전승자는 그것을 정리하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이야기 재현이라는 형태로 기록하고, 거기에 일본어 번역을 붙였다.

기록화된 ‘후가누토’ 전승은 요나국어만 해도, 대략 2500행, 일본어 번역을 더한 문자수는 약 15만자 정도이다. 그리고 이 기록들과 병행해서, 전승자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한 음원이 있다. 사실 일본에서도 요나국어와 같은 원어민에 의한 계승이 어려워진 언어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가 작성된 것은 매우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내용은 가능한 한 메이지 태생의 화자들의 이야기를 재현하도록 노력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표류민이 요나구니섬에 온 시점에는 네덜란드라는 지명은 아직 없고, 홍두서 사람들과도 교류는 있어도 호칭은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세월 구전되는 동안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요나구니섬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밖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フガヌトッ a はなし

NO1 1/2

ンカチ ンカチ ンカチ ンカチ ンカチ マンブルンカチ
カチ カチ カチ カチ カチ マンブルンカチ

バガヌ ガーランカチ マ
バガヌ ガーランカチ マ

ヌヌ カチ トゥレバガヌ トゥレバガヌ
ビュンカチ カチ スーティ
ヌヌ カチ トゥレバガヌ トゥレバガヌ

タマツレ アラヌ トゥレ アラヌ
タマツレ アラヌ トゥレ アラヌ

タマツレ アラヌ コート アラヌ
タマツレ アラヌ コート アラヌ

ウニビ マ フガヌトッ
ウニビ マ フガヌトッ

ンテツ フタツ
ンテツ フタツ

(전승자의 기록 노트 1권. 와카란코 기록. 안케이 교수 촬영 제공 2025)

7. '후가누토' 전승과의 비교를 통해 본 실록 기사

김비의 일행의 표류 기록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그것은 현재 요나구니 주민들 사이에는 이들의 표류와 그곳에 머물며 보냈던 일상을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표류민으로서의 김비의 일행의 체류 상황의 조선과 요나구니 모두에 전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김비의 일행의 표류 사실을 정리한 실록 기사와 요나구니 사람들의 구전을 비교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가 있다.

문헌 기록에도, 본인의 이름이 김비을개 또는 김비의로 되어 있거나, 지명에 맞춘 한자가 모두 다른 것이나, 일수·사람 수의 기억의 흔들림 등이 있어서, 역사 기록에도 다양한 변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류큐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리오모테섬의 조노촌은 지금도 '스네시마'로 불리고 있는데, 15세기에 이미 '소네시마'로 들렸다고 한다. 구비 전승의 연속성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표류민들은 이리오모테도(西表島)에서 남쪽의 하테루마도(波照間島)로 보내지고, 이시가키 섬에는 들르지 않았다. 향후 1500년에 이시가키 섬 남부의 오하마를 거점으로 하는 오야케아 카하치가 미야코와 슈리에 대해 싸움을 도전하게 되는 시점에, 야에야마에는 이미 친류큐 왕국과 반류큐 왕국이라는 적어도 두 세력의 대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제주

도민이 이시가키 섬 남부나 이리오모테 섬 동부에 표류했다면 류큐 왕국을 통한 귀환은 불가능하고 이 기록도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류큐왕국에 이른 세 명의 표류민들은 상진왕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였으며, 실권을 쥐고 '여주'로 군림했던 것은 왕모의 '오기야카' 였다. 통역을 통한 관리의 물음에 자신들은 세금으로서의 쌀을 실은 배를 내고 표류했다고 상의하여 거짓 대답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감귤류의 열매가 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외국에 감추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바다가 거친 겨울에 열리는 감귤이 특산물인 제주인에게 표류가 많았던 것도, 배에 탄 김득산이 굶어죽어도 진상품인 감귤에 손대지 않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된다.

류큐의 기록에 의하면 귀환의 경로에 대해서 '일본인은 성악이므로, 너희를 맡기면 무엇을 할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후쿠슈로부터 베이징으로 가는 길을 추천한다. 11년 동안이나 계속된 오히토의 난이 1477년에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조선 통역사가 '그렇게 먼 길이 아니라 일본을 지나 돌아가고 싶다고 부탁' 해서 신청했는데, 우연히 류큐에 체재중인 하카타가 류큐의 사절로 임명된다. 사절이 표류민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은, 당시 횡행하던 있지도 않은 나라의 가짜 외교사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즈,오표가 된다. 류큐는 도중의 식량과 의복 등을 윤택하게 지급해주었다. 야에야마의 신성도를 지나면서 심해진 김비의 두통에도 남만의 약주를 주기도 했다.

하카타의 마을은 오우치씨와 쇼니씨의 전투가 있던 직후로, 패배한 군사들이 대마도 그림자에 가려져 해적질을 할까봐 반년 정도 출발을 하지 못했다. 염포를 거쳐 겨우 한성(오늘의 서울)에 도착한 신이시로 일행이, 조선의 성종에게 가져다준 류큐의

국서는 이미 돌아간 상덕왕의 명의였다. 당시 류큐 국내에도 파벌 싸움이 있었고, 하카타 상인의 국제 무역 이권과도 복잡한 연관이 있어 그 안에서 외교 문서의 위조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종이 내린, 죽은 것으로 파악된 다섯 명의 제주도 가족에게 공무재해 피해자로서의 공식 문안과 살아 돌아온 세 사람이 잘 쉬고 생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2년간의 노역 면제와 반 년간의 식량, 의복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문서로, 류큐의 표류 사건의 기록은 끝이 난다.

여기서는 우선 『성종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구비 전승과의 내용상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김비의 일행은 성종 8년(1477) 2월 1일에 제주를 출발해 성종 10년(1479) 5월 3일에 옹포로 입국했다. 출발에서 귀국까지 약 2년 3개월 가량이 걸린 셈이다. 2년 3개월의 시간 가운데 김비의 일행이 요나구니 섬에 체류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다. 이들의 전체 체류 기간을 고려할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요나구니섬 옆에 있는 소내도에서는 5개월 정도를 체류했고, 유구국 본섬에서도 3개월을 체류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따지면 요나구니섬의 6개월은 다른 섬에 비해 1달 내지 3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表1 歴史記録と口頭伝承の対比

『成宗大王実録』(本書第3部)	合致度	《ふがぬとう》伝承(本書第1部)
柑子を積んで済州島を出た(a, 01)	◎	故郷は蜜柑の花咲く島(2.4)
金非衣ら3人がエンイ島で救助(a, 01)	◎	3人を与那国島と西表島との間の海で救助(1.3)
乗組員の5人は遭難死(a, 01)	◎	5人の仲間が死んだ(2.2)
3人で板に跨がり漂流(06)	◎	3人で板につかまり漂流(1.3)
漁をする2艘の舟に救われる(06)	○	魚捕りの4艘のうち2艘に乗せた(1.3)
浜に草で仮小屋を建てて収容(09)	△	始めは海に近い民家に泊めた(1.7)
14日間絶食(13)	○	よほど空腹のように食べた(1.6)
米の飯と干魚と濁酒(15)	◎	米粟芋の飯と干魚と野菜の汁と口噛み酒(1.6)
魚の名は知らぬものばかり(16)	◎	捕れた魚を珍しそうに見るのが珍しい(3.5)
7日後から人家に移動(17)	○	めいめいの小屋を1日半で建てた(1.7)
1月後3人を3つの集落に分ける(19)	○	それぞれ別に住まわせるがお互いに近い(1.7)
島の人の容貌は我らと同じ(21)	◎	漂流民の容貌は同じ。体に毛が少ない(1.4)
耳と頭の飾りに青い珠玉(22)	◎	青い珠の首飾りをして舞う(1.4)
島の人は髪とあごひげが長い(24)	◎	罰されたように髪が短い。ひげもない(1.4)
土鍋は5、6日で破裂(25)	◎	土鍋がすぐ割れると文句を言う(3.9)
米が主食、粟は植えることを好まず(26)	○	米が主食。粟は好物だが大切な交易品(1.6)
丸いおむすびを葉の上に(27)	◎	葉の上のおむすび(2.3)
塩や醬がなく海水で味付け(28)	△	海水も使うが希少な味噌《ぎんす》あり(3.13)

표1 역사 기록과 구전 전승의 대비

"성종대왕실록" (본서 제3부)	일치도	(본서 제1부)
아이를 싣고 제주도를 떠나다(a, 01)	◎	고향은 꽃이 피는 섬(2.4)
윤이섬에서 김비의 등 3명이 구조(a, 01)	◎	3명을 요나고쿠지마와 이라오모테 섬 사이의 바다에서 구조(1.3)
승무원 5명이 조난 사망(a, 01)	◎	5명의 동료가 죽었다(2.2)
3명에서 판자를 타고 표류하기(06)	◎	3명에서 판자를 붙잡고 표류(1.3)
고기잡이 배 두 척이 구해준다(06)	○	4척의 어선 중 2척을 타고(1.3)
해변에 풀로 임시 오두막을 지어 숙박(09)	△	처음에는 바다와 가까운 민가에 묵었다(1.7)
14일간의 단식(13)	○	배고픈 듯이 먹었다(1.6)
쌀밥과 견어물, 탁주(15)	◎	조밥과 견어물, 아채즙, 입안에서 씹어먹는 술(1.6)
이름 모를 물고기들(16)	◎	잡힌 물고기들 보기 드물게 볼 수 있다(3.5)
7일 후부터 인카로 이동(17)	○	하루 반 만에 영영의 오두막을 지었다(1.7)
1개월 후 3 명을 3 개의 마을로 나눈다(19)	○	각각 따로 살게 하지만 서로 가깝게(1.7)
섬사람의 외모는 우리와 똑같다(21)	◎	표류민의 외모는 같다. 몸에 털이 적다(1.4)
귀와 머리 장식에 푸른색 진주(22)	◎	푸른 구슬 목걸이를 걸고 춤춘다(1.4)
섬 사람들은 머리와 수영이 길다(24)	◎	발을 받은 것처럼 머리가 짧다. 수영도 없다(1.4)
5, 6일 만에 목배기가 터진다(25)	◎	목배기가 금방 깨진다고 불평한다(3.9)
쌀은 주식, 조는 심기 싫어(26)	○	쌀이 주식, 조는 기호식품이지만 중요한 교역품(1.6)
임사귀에 등글게 말아 올린 주먹밥(27)	◎	임사귀 위의 주먹밥(2.3)
소금과 간장 없이 바닷물로 간을 맞춘다(28)	△	바닷물도 사용하지만 희귀한 된장 '긴스'도 있다(3.13)

表1 歴史記録と口頭伝承の対比(続き)

『成宗大王実録』(本書第3部)	合致度	《ふがぬとう》伝承(本書第1部)
米の口噛み酒をよく飲む(29)	◎	砕け米の口噛み酒を日常的に作る(1.6)
ヤシの葉に包んだ米の餅(31)	○	米の餅と栗の団子(5.2)
苧麻と藍染の貫頭衣(32)	◎	《ぶー》苧と植物染めの貫頭衣(1.9)
家に鼠あり。猫・牛・鶏を飼う(35)	◎	鼠は食用。猫・牛・鶏を飼う(1.5; 3.17)
豚・猪についての記述なし(35)	X	《あぐわ》豚の高い鳴き声に驚く(3.17)
牛・鶏を食べようと言って嘲笑される(35)	◎	牛・鶏を食べようとしたが禁止(3.17)
飛ぶ鳥は鳩と黄雀のみ(36)	○	野鳥を捕まえて食べようとして罰される(3.17)
龜・蛇など14種類の「虫」がいる(38)	◎	神聖なものの以外は食用。次節で個別に検討
稲は1度植えて2度収穫(39)	◎	新しい稲株と再出葉の稲株を区別できた(5.2)
収穫前の穂穂と苗の禁止(39)	◎	収穫前に竹笛を吹いたので取り上げた(5.1)
鎌・斧・ちょうなあり(41)	○	大きな鎌があった(5.1)
死者は崖の下に置く(42)	◎	死者は崖の下に《だや》に寝かせる(5.3)
野菜は蒜・茄子・瓜など(44)	△	栽培よりも野生のものが中心(3.4)
烏梅・桑・竹あり(45)	◎	漂流民は桑・竹をよく利用(4.4)
青橋・小栗あり。橋は四時花咲く(46)	◎	山みかんの花に泣き崩れる(2.4)
便所なし。もっぱら野糞(48)	△	便所はあった。野外排泄の作法を説明できず(3.3)
箴と杼は同じだが機は違う(49)	○	家族以外に機を見せることは禁忌(4.1)
盗賊・喧嘩なし。幼児を叩かない(52)	◎	互いに睦み合い、幼児を大切にする(4.5)
その俗、酋長なし(53)	△	政治・宗教・資源利用全般を司る《むらぬうや》(1.5; 2.2)
「朝鮮國」の文字を理解しない(d, 54)	◎	地面に絵を横書きに意味不明の模様を書いて説明(3.2)
古い稲と新しい稲を並べて出売を予告(54)	◎	新旧の稲株・飯・餅を区別できた(5.2)
鳥の人13名と一船に乗り組む(e, 54)	◎	《むらぬうや》が乗組の13名を選定して出売(6.3)
7月晦日 鳥を出売(54)	◎	8月1日 旅人の安着祈願の栗団子3つを吊るす(7.3)
所乃是廣(西表島祖嗣)に護送(e, 54)	◎	与那国島民の一人が西表島で再会(6.4)

표1 역사 기록과 구전 전승의 대비(계속)

"성종대왕실록" (본서 제3부)	일치도	(본서 제1부)
쌀로 만든 입에 씹는 술을 자주 마신다 (29)	◎	일상적으로 쌀을 갈아 만든 입에 씹는 술 만들기 (1.6)
아자 밑에 썬 발백 (31)	○	발백과 수수경단 (5.2)
모시와 흑염색 관두의 (32)	◎	부) 모시와 식물염색 관두의 (1.9)
집에 쥐가 있다. 고양이-소-닭을 키운다(35)	◎	쥐는 식용. 고양이-소-닭 기르기(1.5; 3.17)
돼지-멧돼지에 대한 설명 없음(35)	X	아구아) 돼지의 높은 울음소리에 놀란다 (3.17)
소-닭을 먹자고 했다가 조롱당하다(35)	◎	소-닭을 먹으려다 금지(3.17)
비둘기와 황조롱이만 날아다닌다 (36)	○	야생조류를 잡아 먹으려다 벌을 받는다 (3.17)
거북아-벌 등 14종의 '벌레'가 있다 (38)	◎	신성한 것 외에는 먹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 개별적으로 검토
버는 한 번 심고 두 번 수확 (39)	◎	신물종 벼와 재출엽 벼를 구별할 수 있었다 (5.2)
수확 전 금주 및 호루라기 금지 (39)	◎	수확하기 전에 대나무 피리를 불어서 빼앗겼다 (5.1)
낮-5-장나라(41)	○	큰 낮이 있었다 (5.1)
죽은 자는 절벽 밑에 두어라 (42)	◎	죽은 자는 절벽 아래 '다야'에 놓인다 (5.3)
아재는 마늘-가지-호박 등(44)	△	재배보다 야생이 중심 (3.4)
오매-뽕나무-뽕나무-대나무 있음 (45)	◎	표류민은 뽕나무-대나무를 많이 이용한다(4.4)
청굴 - 작은 밤이 있다. 굴은 네 시에 쫓아 핀다(46)	◎	산 굴꽃에 11 무리진다 (2.4)
변소 없음. 오로지 야생 똥 (48)	△	화장실은 있었다. 야외 배변 예절을 설명하지 못함 (3.3)
정(정)과 서(서)는 갈지만 기(機)는 다르다 (49)	○	가족 외에는 비행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금기 (4.1)
도작-싸움하지 않고. 유아를 때리지 않는다(52)	◎	서로 화합하고 유아를 소중히 여긴다 (4.5)
그 속, 족장 없음 (53)	△	정치-종교-자원 이용 전반을 관장하는 《무라누야》 (1.5; 2.2)
"조선국(朝鮮國)이라는 글자를 이해하지 못함 (d, 54)	◎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옆에 의미 모를 무늬를 써서 설명 (3.2)
날은 벼와 새 벼를 나란히 놓고 출발을 알린다 (54)	◎	신물종과 구물종 쌀-쌀밥-떡을 구분할 수 있었다(5.2)
섬사람 13명과 한 배를 타다 (e, 54)	◎	무라누야) 가 승무원 13명을 선발하여 출발 (6.3)
7 월 전야 섬에서 출발 (54)	◎	8 월 1 일 여행자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수수부꾸미 3개 매달기 (7.3)
소노시마로 호송(이리오모테 섬 소노, e, 54)	◎	요나쿠시마 주민 중 한 명이 이리오모테 섬에서 재회(6.4)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비의 일행의 표류 및 귀환 과정 전체에서 요나구니섬이 차지하는 의미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탄 배가 좌초되어 3인만이 겨우 판자 하나로 목숨을 부지해 바다 위를 떠돌고 있을 때, 그들을 구조해 주었던 고깃배는 바로 요나구니섬 사람들의 배였다. 그리고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들을 정성껏 간호해 주고 기운을 되찾게 해주었던 것도 요나구니 주민들이었다. 김비의 일행에게 요나구니 섬은 단순히 한 두달 더 체류가 길었던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들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한 낯선 문화를 지닌 타국의 땅이었고, 그곳 주민들은 생명의 은인들이었다. 그렇기에 김비의 일행의 증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섬은 바로 요나구니 섬이었다. 5개월이나 체류했던 바로 옆의 소내도 보다는 몇 배나 많은 분량이었다. 이들에게 요나구니 섬의 자연과 풍속은 그 자체로 새롭고 기이한 것이었다. 그리고 체류했던 다른 섬에 대해 증언할 때도 요나구니 섬이 항상 표준이 되고 있었다. 요나구니 섬과 관련한 이들의 증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표 17> 윤이 섬 풍속과 생활 문화

항목	분류	증언 내용
의(衣)	장신구	남녀 모두 귀걸이 착용과 그 방식
	신발	신지 않음
	머리 장식	남성의 머리 장식과 수염 형태, 여성의 머리 장식
	모자	관대(冠帶)가 없고,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승립(僧笠) 형태의 삿갓 같은 모자
	의복	의복-삼(麻)·목면(木綿)·양잠(養蠶)이 없고 모시(苧)를 사용, 직령(直領) 형태의 의복, 남청(藍靑)색 염색, 백포를 활용한 속옷, 여성은 속치마를 입고 속옷이 없으며 푸른색 염색 치마 착용

	직조(織造)	베를 짤, 성서·승수·추세는 비슷하지만 다른 기계는 우리와 다름
식(食)	식기	흙을 개어 햇빛에 말린 용기 사용, 5·6일이면 파열
	주식	쌀을 주로 먹음. 조(粟)가 있으나 즐기지 않음
	밥	주먹밥 형태로 만들어 손바닥에 나뭇잎을 얹어 놓고 먹음
	국	간장 등 염장(鹽醬)은 없음, 바닷물과 채소로 국을 끓임, 바가지 사용
	술	탁주 음용, 청주는 없음. 바가지로 술을 마시고, 수작(酬酌)의 예가 없음. 안주로는 나물, 마른 물고기, 회 등을 애용
	떡	떡 - 보구(디딜방아)로 찢어 만들
	가축&육식	쥐·소·닭·고양이가 있으며, 소와 닭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물어 줌. 소와 닭의 식용을 권유했으나 침을 뱉으며 비웃음.
주(住)	가옥	가옥은 내실과 창이 없는 1실, 띠로 지음, 기와·올타리 없음, 나무 침대 사용, 이불과 요 대신 포석 사용, 창고가 있고 안에 벼를 쌓아둠
	조명	등촉은 없고, 밤에는 대나무를 엮어 햇불을 피움
	화장실	뒷간이 없어 들에다 볼 일을 봄
	우물	땅을 파 우물을 만들고 바가지와 병으로 물을 길음
자연	산	산에 재목이 많고 잡수(雜獸)가 없음
	새	비둘기와 황작(黃雀)이 있음
	곤충	거북·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박쥐·벌·사마귀·잠자리·지네·지렁이·개똥벌레·게
	채소	마늘·가지·참외·토란·생강이 있고, 가지의 경우 매우 크고 생존기간이 길
	나무	오매·뽕나무·대나무가 있음
	과실	청귤과 작은 밤, 귤은 四時로 꽃이 피
	기온	겨울에도 서리와 눈, 얼음이 없고, 초목이 마르지 않음, 홀쭉두벌을 입다가 여름에는 하나만 입을 정도의 기온
풍속	장례	시신을 관에 얹혀 언덕 석굴에 두고 흙으로 덮지 않음, 넓은 석굴에는 여러 구의 시신이 담긴 관을 함께 넣음
	도둑&육아	도적이 없음, 다툼이 없고 어린아이가 울더라도 손을 대지 않음

	추장&언어	추장이 없고, 문자를 모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음
생산	철야(鐵冶) 및 농경	쟁기는 없고, 작은 삽을 사용해 조를 심음, 수전(水田) 농경과 2기작, 수확 전에는 근신, 수확 후에는 작은 피리로 연주, 수호가한 벼를 대나무 막대기로 탈곡하고 디딜방아로 찧음
	농기구&무기	낫·도끼·무자·작은 칼 사용, 궁시·부극은 없고, 창을 구비하고 상용
	선박	키와 돛대만 있고 노는 없음, 순풍에만 돛을 달

위 표는 홍문관의 윤이 섬 관련 기록을 의·식·주·자연·풍속·생산 등 6개의 카테고리로 재분류한 것이다. 홍문관의 기록은 타국 사람들의 의식주와 자연환경, 그리고 풍속과 생산 방식 등 공동체의 생존과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성종이 홍문관에 별도의 기록을 남기라고 명을 내렸던 이유도 이들이 거쳐온 여러 섬들의 풍속이 매우 기이했기 때문인 만큼,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지, 어떤 자연환경과 풍속을 갖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요나구니섬 사람들의 전승은 기본적으로 김비의 일행의 행적을 방문에서 이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독특하다. 무엇보다 요나구니섬 주민들의 전승은 ‘후가누토’ 즉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로 오랜 시간 세대를 이어가며 구전되었다. 후가누토는 두말할 필요 없이 김비의 일행을 가리킨다. 요나구니 주민들은 예상치 못했던 외래인의 방문과 체류 과정에서의 다양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들과의 이별 등을 따듯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들에 대한 기억을 후손들로 하여금 이어가도록 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요나구니섬 주민들의 전승을 실록

기사와 대비할 경우 실록 기사의 무미건조한 내용들은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거나 훨씬 풍부해진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홍문관 기록에서는 김비의 일행이 탄 배의 좌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 14일 썰에 한 작은 섬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미처 기슭에 대이지 못하여 키가 부러지고 배가 파손되어 남은 사람은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고, … 우리들 세 사람은 한 판자에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탕(漂蕩)하는 사이에 마침 고기잡이배 두 척이 있어서 각각 네 사람이 타고 앉아 있다가 우리들을 발견하고는 거두어 싣고 가서 섬 기슭에 이르렀습니다.²⁵⁾

매우 위급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비교적 담담하게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승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나쿠니 섬과 이리오모테 섬 사이의 바다에서 세 사람이 바다 속에서 큰 판자 하나에 가슴을 기대고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붙잡고 있던 것은 부서진 배의 앞부분의 판자 같았다.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배에 태워주었더니 파도에 휩쓸렸는지 거의 알몸에 허리 둘레에 살짝 남은 천도 붙잡을 정도로 너털너털했다. 판자에 끈으로 배를 묶고 있었다. 죽어도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²⁶⁾

후가누토 세 사람은 시키하마의 바다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북서쪽을 향해泣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 후

25)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 6월 10일(을미)

26) 『후가누토』 「바다에서 만난 사람들」

가누토 한 사람이 나무 아래서 계속 泣하고 있다. … 그것이 매일 계속된다. … 다른 두 사람에게 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泣하고 있다. 나뭇잎이 떨어져도 눈치채지 못한다. 벌레가 다가와도 눈치채지 못한다. 누가 말을 걸어도 그냥 泣할 뿐이다.²⁷⁾

후가누토 전승에서 설명하는 김비의 일행의 구조 당시의 모습이 매우 생동적이다. 첫 번째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구조 당시 거의 알몸 상태에 너털너털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설명에서 이들이 겪은 고난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판자에 끈으로 자신들을 묶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는 설명에서는 좌초 과정에서 4명이나 목숨을 잃었던 절대절명의 위기와 남은 생존자들이 판자에 함께 묶어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상황이 실제 구조 당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는 구조 후 이들이 동료들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다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무 아래에서, 매일 같이, 울고 있는 후가누토. 그것은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벌레가 다가오는 것도, 사람이 말을 걸어도, 이들은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며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홍문관 기록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김비의 등이 동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왕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의 성격상 듣기는 했으되 이를 생략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요나구니 섬 주민들의 눈에는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 전승의 내용으로 채택되었고, 그들의 기억은 구조를 전후로 한 시기의 이들의 처참했던 심정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27) 『후가누토』 「울음을 멈추지 않는 후가누토」

다음으로, 김비의 일행이 섬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살펴보자. 아래는 홍문관 기록에서 솔과 염장(鹽醬)과 관련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마·솔·숟가락·젓가락·소반·밥그릇·자기(磁器)·와기(瓦器)는 없고, 흙을 뭉쳐서 솔을 만들어 햇빛에 쪼여 말려서 짚불로써 태워 밥을 짓는데, 5,6일이면 문득 파열(破裂)해 버립니다.²⁸⁾

염장(鹽醬)은 없고, 바닷물에 채소를 넣어서 국을 만들며, 그릇은 바가지[瓠子]를 사용하거나 혹은 나무를 파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²⁹⁾

홍문관 기록에는 요나구니 섬에는 식기가 다채롭지 못함과 흙을 뭉쳐 만든 솔의 짧은 사용 기간, 그리고 장(醬) 문화가 없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후가누토 전승과 대비해 보면 당시 요나구니 상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풍부해진다.

어느 날 후가누토는 화가 많이 났다. … ‘흙으로 만든 냄비가 금방 깨진다’는 것이었다. 그래, 그래 하며 섬 사람들은 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냄비를 만들어 주었다.³⁰⁾

그 당시의 ‘키무누’(절임)는 바다에 담가서 맛을 냈다. 그러나 후가누토는 아단의 새싹 심을 사용한 절임을 만들거나, 말린 생선에 작년 소금에 절인 노빌과 히하츠모도키 열매, 동백나무 열매를 넣고 그 위에 돌을 넣어 무게추로 삼았다. 완성된 새로

28)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 6월 10일(을미)

29) 위의 주 참고.

30) 『후가누토』 「금방 깨지는 뚝배기와 그 개선」

운 절임의 맛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³¹⁾

첫 번째 기록은 김비의 일행이 수명이 길지 않는 냄비에 화가 많이 났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냄비를 많이 만들어 주어 깨진 냄비를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내용이다. ‘흙을 뭉쳐 구어 만든 솥이 5,6일이면 파열해 버린다’는 말의 이면에는 요나구니 섬에서 이들이 겪었던 불편이 배어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록은 후가누토 덕분에 새로운 절임법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요나구니 섬 주민들은 바닷물에 채소를 담가 조리해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가누토는 말린 생선과 소금 및 채소 등을 이용하는 절임 방법을 선보였고, 섬 사람들이 그 맛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홍문관 기록의 ‘염장은 없고 바닷물에 채소를 넣어서 국을 만든다’는 표현은 단순히 관찰자로서의 입장만 드러나 있다. 하지만 후가누토 전승을 통해 보면 이들이 그곳에 머물며 보여줬던 새로운 절임 방법은 섬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맛이었으며, 새로운 절임법의 시작이었음을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괴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육식 대상으로 삼는 가축이 그렇다.

집에는 쥐·소·닭·고양이가 있으나, 소와 닭의 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곧 문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르기를, ‘소·닭의 고기는 먹을 만한데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더니, 섬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비웃었습니다.³²⁾

31) 『후가누토』 「새로운 절임의 맛」

32)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 6월 10일(을미)

김비의 일행은 소와 닭을 식용으로 먹지 않는 섬 주민들에게 그것을 권유하자 침을 뱉으며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와 닭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귀한 육식 자원이었기에, 소와 닭을 먹지 않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의도는 침을 뱉는 모욕으로 되돌아와 적지 아니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후가누토 전승은 자신들이 왜 소고기와 닭고기를 먹지 않는지 일러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후가누토가 정원에 ○을 써서 그 안에 그린 그림 중에 소와 새 그림 옆에 × 표시를 7개 정도 붙인 장면이 있었다. 소가 죽었을 때 소가 죽지 않도록(소를 먹지 않도록?) 섬 사람들이 사체를 둘러싸고 몸으로 숨겼을 때 후가누토는 어떻게든 틈새에서 엿보려고 (마음) 먹은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음식이 아니다’ 라며 먹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렸던 것 같다. … (후가누토) 집 근처 나무에 새 한 마리(하토)가 달려 있었다. … 후가누토는 먹을 거라고 말했다. … 네 사람이 와서 후가누토에게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가누토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 어르신은 후가누토를 ‘멘메코’ 라고 불렀습니다. 꾸짖는 것이었습니다.³³⁾

전승에서는 후가누토가 소와 새를 그리고 어떤 표식을 남겼는데, 이는 소가 죽었을 때 김비의 일행이 그것을 먹으려고 했다가 저지당한 일과,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역시 주민들과 충돌한 일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소고기를 귀한 음식 자원으로 활용하던 조선인들과 소를 신성시 하는 요나구니 주민 사이

33) 『후가누토』 「소도 새도 먹을 수 없다」

에 발생한 문화적 충돌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요나구니 섬 주민들은 논에서 일하는 소와 죽은 자의 영혼을 등에 업고 날라다주는 모든 새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렇기에 후가누토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³⁴⁾ 반면 김비의 일행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소고기와 새를 먹으려 하다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욕까지 먹게 된 것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다. 홍문관 기록의 소와 닭을 먹지 않고 묻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당한 기사는 각기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무릇 6삭(朔)을 머물고, 7월 그믐에 이르러 남풍이 불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섬사람 13명이 우리들과 같이 양식과 탁주를 준비해 가지고 같이 한 척의 배를 타고서 1주야(晝夜) 반을 가니,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³⁵⁾

섬 사람들은 모두 마음 속으로 후가누토들과 이별한다. 가기 싫다. 못 가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다. … 무라누야는 세 사람을 보낼 사람으로 13명을 선택했다. 평소 배를 타는 데 익숙한 사람은 물론, 별은 보고 방향을 잘 아는 사람, 변질된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섬사람들이 선발되었다. … 후가누토가 출항하는 날까지 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음식과 소지품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 후가누토가 타는 배에 실었다. … 세 사람을 태운 배가

34) 후가누토 전승 초입부에는 고양이와 닭이 평소와는 달리 우렁차게 울면서 밤낮으로 뛰어나는 장면이 나온다. 고양이와 닭을 포함한 새들은 신성한 존재들이었고 이들의 소란스런 모습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었다. 『후가누토』 「고양이와 닭이 떠들썩 하다」

35)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 6월 10일(을미)

드디어 섬을 떠난다. … 그곳에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아쿠이
사까지 모두가 해안가에 서서 손을 흔들며 배웅을 했다. 진심
으로 이별을 아쉬워하며 세 사람의 안전을 기원하며. 36)

위 두 사료는 김비의 일행이 요나구니 섬을 떠나는 장면을 담
고 있다. 홍문관 기록에서는 6개월 체류 후 섬 주민 13명과 함
께 음식을 싣고 떠나 다음 섬인 소내도에 이르는 상황을 사실
위주로 적고 있다. 반면에 후가누토 전승은 이보다 훨씬 더 풍
부하게 이들과의 애절한 이별을 설명하고 있다. 섬 주민들 모두
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
며, 돌아가는 후가누토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
를 해주었다. 뛰어난 항해사를 비롯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자 13인으로 구성된 호송단을 꾸렸다. 뿐더러 음식과
소지품 목록까지 만들어 배에 실어 주었다. 그리고 후가누토가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들의 안전을 기원해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종 대 김비의 일행의 표류와 관
련해서는 조선 조정과 요나구니 섬 모두에서 각각의 방식에 입
각해 기록이나 전승의 형태로 전해오고 있다. 홍문관 기록과 후
가누토 전승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기록
모두 맥락이 상통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후가누토 전승을 홍문관 기록과 대비할 경우 사실 위주에
보고서 형식의 건조한 홍문관 기록은 그 내용과 의미가 훨씬 더
풍부하게 되살아 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각기 다른 기억 방식
을 통해 15세기 후반 조선의 변방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드라마
틱 한 삶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36) 『후가누토』 「출발과 이별」

값진 자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실록 기사와 후가누
토 전승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통해, 제주도 주민과 요나구
니 섬 주민들의 소중한 인연을 보다 풍성하게 재구하며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8. 제주학과 대비 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477년 2월 김비의 일행의 표류는 성종시대 조선의 문헌 기록이 있다. 일본 쪽에도 문헌 기록이 남아서 특히 미야코-야에야마 섬들의 생활이 문자로 기록되어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530년이 지난 2007년 3월, 일본의 인류학자 안케이 교수는 이 표류 사건에 대응하는 후가누토 구비전승이 요나구니 섬 출신의 전승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유일하게 남은 전승자와 서로를 격려하며 기억을 불러내고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25년 일본어로 구비전승 자료를 출판하였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제주학 연구센터의 지원에 힘입어 이 자료들의 대비 연구에 들어갔다. 이제 여기서 보고서의 결론으로 제주학이라는 지역 연구에서 대비 연구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학문적으로 제주학이라는 분야는 성립 가능하며, 그 대상은 제주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된다고 본다. 이에는 공시적 접근과 통시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제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탐라’로 표현되는 과거의 모습도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³⁷⁾

그래서 지역 연구로서 제주학을 일단, ‘제주라는 지역을 대

37) 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상으로 하여 그것의 장소나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를 증진하는 학문 분야’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의 지역 연구 경향에 따르면, ‘지역은 지식의 체계적 축적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⁸⁾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학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이 과거 행정구역상 전라도에 속했던 제주도 지역의 조사연구 성과를 호남학에 포함시키려 했었는데³⁹⁾, 지역학에서 그 대상은 행정구역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제주학은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상과 인식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며, 호남학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그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이 된다는 것이 여기서의 판단이다. 전경수도 이런 시각에서, ‘탐라’와 ‘제주’를 맥락에 맞추어 같이 사용하거나, ‘류쿠’와 ‘오끼나와’를 혼용하기도 한다.⁴⁰⁾

이처럼 지역 연구의 경우, 특수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직관적 특수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보편적 인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서 ‘특수성’과 ‘보편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비교’ 연구만한 것이 없다. 적절한 ‘비교’ 연구는, 그 대상의 특성을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 대상과의 상대적 거리를 통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38) 김경일 편, 『지역 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8.

39) 염미경 · 한석지, 「제주학에서 지역연구의 성과와 전망 : 타 지역학과의 관계 모색을 위하여」, 『제주도 연구』 30집, 제주학회, 2007.

40) 전경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일반적으로 비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현상의 집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질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주체와 객체의 문제도 있고, 비교의 준거 설정이라는 문제도 있다. 필자는 인식의 ‘방법론’으로서의 비교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인식과 방법론을 구별해서 논하는 이들도 있고, 이들의 논의가 더 정치하다.⁴¹⁾

표해록은 저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표류 당사자가 기록을 남기는 경우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표류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필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요니구니에 대한 연구는 주민들의 구비 전승이 존재한다는 점이 대단히 특이하고 소중하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지형학적으로 바다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해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동북아시아권의 경우 한자문화권을 중심으로 기록 문화를 발전시킨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기록을 통한 전승보다는 구전이 발전했다고 보인다.⁴²⁾

조선 시대에는 표류 기행을 다룬 기록물이 상당수 나왔다. 특히 문자를 알고 있는 식자층의 경우에는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글쓴이들의 선입견이나 가치 판단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는 특징을 가진다. 필자가 보기에 당시 제주인들이 동아시아를 인식하는 태도로서 중요한 것은 제주의 특수성이 아니라 동아시아와의 보편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그 경계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데 있다.⁴³⁾

41) 전경수, 『일본 열도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1.

42)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표해록』, 역사공간, 2018. 참조.

43) 심경호, 『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표류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그것이 가진 해양 문화로서의 특징이 가장 강력하게 부각된다. 해양 문학은 작품을 통해 해양 관련 경험을 그 근원에서, 또는 오히려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용성의 방향으로 굴절되어 적절히 인간의 경험이 되는, 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뛰어 넘어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⁴⁴⁾

예나 지금이나 사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려면, 우선은 자아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제주의 경우, 이런 진취성과 관계성이야 말로 해양 문화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며,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좋은 정신문화라고 판단된다.

사실 제주가 가지는 이런 해양 문화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미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리되어 있다.⁴⁵⁾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이면적인 모습이 있으며, 해양 문화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성격상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공동연구원 전경수가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말씀과 연구 협력자 안케이 교수의 소회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점으로 오랜시간 망각에 묻혔던 양자간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① 제주도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日本 山口의 安溪貴子와 安溪遊地가 N氏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N씨가 그린 고대 암각화와 같은 그림도 여러 번 보았다. 그것은 신화가 생성되는 과

44) 최영호, 『한국 해양 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 논문, 1998.

45)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파루스, 1998.

정이었다. N씨의 이름이 和歌嵐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제주도와 제주도 양쪽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과 언어를 교환 하였던 540여 년 전의 이야기가 和歌嵐香, 安溪遊地, 安溪 貴子 세 사람의 마음과 언어의 교환으로 만들어진 'ふがぬ とぅ'신화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에 기록되어 있다 . 인류가 살아온 지구상에서 한 편의 신화가 탄생하는 과정이 증명된 유일한 事例研究이다 . 이제 제주도와 우리 나라는 동아시아 해역의 신화 공동체가 되었다. 이 신화 한 편이 완성되는 過程을 볼 수 있었던 事實 자체가 나에게 는 무한한 感動이자 榮光이다. 여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같은 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공유하는 腦가 있는 한 지구에는 새로운 이야기의 희망이 있다. 오늘이 腦供養日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경수

② 우리는 제주도 첫 방문에서 이 기록의 주인공인 김비의 등이 현지에서 완전히 잊혀 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소 낙담하고 귀국한 다음날인 2007년 3월 12일, 이 핵심 전승자 N씨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세 명의 남자에 대한, 매우 이상한 전설이 있어 ……」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될 정도의 긴장으로,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 실록을 포함한 이러한 역사 기록이 있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N의 기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로지 청취에 힘썼고, 유도 신문이 될까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3명의 생존자와 5명의 사망자로 구성된 표류민은, 당시 요나구니 섬 사람들이 전혀 몰

랐던 동북아시아의 '다른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지에 다룬 감귤의 하얀 꽃이 향수병의 눈물로 이어지는 유일한 장소, 제주도야말로 그들의 고향이었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의 나체로 표착된 사람들의, 무릎을 꿇고 앉는 모습이나 생선 발효식품에 대한 강한 집착, 그네뛰기 등 제주도다운 문화의 향기가 곳곳에 풍기지 않을까요?

야마구치현립대학 명예교수 안케이 유지



요나하 나오키의 '후가누투: 요나구니의 제주도 표류민 전승' 표지



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 섬을 찾은 인류학자 안케이 유지 교수 부부(가운데)가 3명의 제주 표류민이 구출되기 직전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천경수 교수 제공



(후가누토 사망자에 대한 위령제. 전경수 교수 촬영 제공 2019)



(요나구니 축제의 후가누토. 와카란코 그림. 안케이 교수 촬영 2025)

<참고문헌>

- 김경섭 역, 한창훈 해제, 대니얼 디포, 『로빈슨 크루소』, 글누림, 2011.
- 김경일 편, 『지역 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8.
- 미셸 투르니에 저, 김화영 역,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민음사, 2003.
-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1996.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파루스, 1998.
- 심경호, 『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표해록』, 역사공간, 2018.
- 윤치부, 『한국해양문학연구』, 학문사, 1994.
- 이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 장한철 저, 김지홍 역, 『표해록』, 지만지, 2009.
- 정운경 저, 정민 역,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 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전경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 전경수, 『일본 열도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1.
- 최부 저, 윤치부 역, 『표해록』, 박이정, 1998.
- 최영호, 『한국 해양 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 논문, 1998.
- 하우봉 외, 『朝鮮과 琉球』 아르케, 2002.
- 한창훈,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2009.
-
- 김경옥, 「15~19세기 유구인의 조선 표착과 송환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 김재승, 「한국,유구간 표류에 의한 문화적 접촉」 『동서사학』 2, 1996.
- 신동규, 「근세 漂流民의 송환유형과 “國際關係” - 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유형을 중심으로 -」, 『강원사학』 17.18, 2002.
- 염미경 . 한석지, 「제주학에서 지역연구의 성과와 전망 : 타 지역학과의 관계 모색을 위하여」, 『제주도 연구』 30집, 제주학회, 2007.

劉序楓, 「近世東亞海域의 僞裝漂流事件: 道光年間 朝鮮 高閑祿의 中國漂流事例를 中心으로 -」, 『한국학논총』45, 2009.

이 훈, 「朝鮮後期 漂民의 송환을 통해서 본 朝鮮.琉球관계」, 『사학지』 27, 1994.

정 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 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 『한국한문학연구』 43, 2009.

정성일, 「朝鮮과 琉球의 交易」, 『朝鮮과 琉球』, 아르케, 2002.

정성일, 「日本人으로 僞裝한 琉球人의 濟州 漂着 - 1821년 恒運 등 20명이 표착사건 -」, 『한일관계사연구』 37, 2010.

조수미, 「오키나와의 문츄화(門中化) 현상」, 『비교문화연구』 7-2, 2001.

진익원, 「韓, 日, 越 사이에 발생한 漂流事件 검토」, 『한국학논총』 45, 2009.

津波高志, 「沖繩의 門中과 家譜 -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 『조선왕조와 유구왕조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 명지대 개교 50주년 기념 제1회충승국제학술회의자료집, 1998.

한창훈, 「<탐라문견록>에 나타난 제주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그 의미」, 『제주도연구』 38집, 제주학회, 2012.

허경진.김성은, 「표류기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 『淵民學志』 15, 2011.

<첨부 1>

전승자와 연구자와의 대화

안케이 교수는 핵심 전승자인 N씨와의 대화를 통해, 오랜 세월 지역의 노인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카비레(Kabire)’ 전승을 기록하는 과정에 관한 여러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다. 이 대화는 N씨가 구술 전승을 보존하려 했던 동기,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기록은 안케이 교수 집에서 진행된 대화를 토대로 한다.

N: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오래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구전하던 내용입니다.

안케이 : 제가 확인한 바로도, 이 전승은 수십 년 전, 한 해의 어느 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되던 것이었습니다.

N: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요청받거나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만,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N을 중심으로 한 전승

여기서는 N씨를 중심으로 한 전승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적·정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전승은 단순한 암기나 낭송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기억으로 체화된 행위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승이 어떠한 경위로 ‘의례적’ 형태를 갖게 되었는가?

고대 신앙이나 공동체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N씨는 이를 특정한 공식 절차로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하나,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고 증언한다.

형식적 요청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전승을 일상의 일부로서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N씨의 기억은 단순한 개인의 회고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이 발화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안케이 교수는 N씨와의 대화를 통해, ‘카비라(Kabira)의 전승’이 왜 N씨에게

집중되어 전해졌는지를 탐구한다.

N씨는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집안 어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특히 노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후가누토(ふがぬと)’라 불리는 전승 이야기를 유년기부터 반복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려 애써왔다고 증언한다. 노인들은 이야기 도중 자주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이 N씨로 하여금 자신이 전승의 ‘담지자(擔持者)’라는 자의식을 갖게 만든 것이다.

전승이 N씨에게 집중된 이유

전승의 계보를 추적해 보면, 요나구니섬의 특정 가게나 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섬 전체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이야기 담당자’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N씨의 경우, 전승을 기억하고 구술할 수 있는 인물이 그녀 한 사람뿐이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전후 세대의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구전의 장이 사라진 점,

둘째, 기록의 부재로 인한 단절,

셋째, 공동체 내에서 전승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게 된 현실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N씨의 기억은, 전승의 최후 형태로서 학문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생존의 의미를 지닌다.

전승의 가치와 현재적 의미

‘카비라’ 전승은 단순한 표류담이 아니라, 섬의 정체성과 공동체 기억이 응축된 하나의 집단적 서사라 할 수 있다. 그 속에는 제주도에서 건너온 세 명의 남자, 그들을 맞이한 요나구니 사람들, 그리고 이별 후 남겨진 섬사람들의 감정과 신앙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따라서 전승을 계승한다는 것은 과거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오늘에 되살리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억의 윤리’와 ‘구술의 책임’을 내포한 문화적 실천이라 할 것이다.

카비라 전승이 처한 어려움

오늘날 카비라 전승은 단절의 위기에 놓여 있다. 구술자들의 고령화, 전승 환경의 해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N씨의 증언은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

그녀의 구술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섬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내는 생성적 발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카비라 전승은 단지 민속학적 자료에 그치지 않고 ‘기억과 언어의 윤리’를 탐구하는 현대 인류학의 중요한 사례가 된다.

N : 타카코네와 안케이 씨를 만나고 나서, 두 사람을 표적으로 선택해, 나의 요나구니 섬의 기억들을 따끈따끈 뒤편지 던지기로 해 왔습니다만, 부모의 세대로부터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말해 줄 수 있었는가? 좋다」라고 말해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만」이라고 매혹되거나 때리거나 한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있었던 것 같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 왔지만, 수십 명의 노인이 각각 가지고 있던 전설은 너무 엄청나고, 너무 많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당신의 자주 말하는 「미완의 퍼즐」이군요. 그러면, 15세기 후반이라는 옛날에, 제주도로부터의 표류민이 말한 요나구니섬에서의 경험과 ‘후가누토’ 전승이라고 하는 퍼즐의 아직도 숨어 있는 피스의 발굴에 응하고 싶습니다.

표류기에 따른 질문과 대답

-- 실록·권 105의 단락 01부터 단락 05까지는, 요나구니 섬에 도착하기 전의 일로, 오늘의 상식이라면 섬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변을 감지한 고양이나 닭이 소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감을 느낀다는 것은, 섬에서는 보통에 있는 것일까요?

N : 섬에서는 고양이에게 “너는 인간에게 경보를 내야해” 라고 말해 두면, 정말로 필요한 때에는, 인간의 말을 조금 말할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버섯이라는 고양이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개나 물고기 뼈 등을 연결한 것이 많았다. 뼈에도,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푸른 주름을 연결하여 목걸이처럼 한 것입니

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원한다면 줄 것이다"라고 상자에 가득 들어간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후가누토》의 무렵부터 있는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상자마다 주려고 했습니다만 《카쿠마이》(보관)가 힘들다고 생각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 하나의 주름은 마을 바늘의 머리보다 크고 파칭코의 구슬보다 작은 정도. 상자 안에는 푸른 빛의 갈색 같고 희끄무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것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더 긴 것이 있다고 할머니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자에서 꺼내 사용하는 것은, 일년에 한 번만이었습니다. 8월 1일에 처마에 나무를 꽃아 밤의 경단을 3매 매달리면 그 뒤에 할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그 때, 푸른 주름을 연결한 것을 목의 주위에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타마》라고는 말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만 잊었습니다. 「만지면 안된다」라고 말해, 할머니의 춤이 끝날 때까지 지정석에 앉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귀에 걸치는 장식도 있었습니다.

-- 표류민들은 요나구니섬 뒤 이리오모테지마에 가서 여자의 사람이 코의 양 측에 나무 장식을 붙이고 있어 그것이 두더지인 것 같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나구니 섬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당시 코 장식이 있었습니까?

N : 있었습니다. 코의 장식 《키바나》를 제외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어느 날 밤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놀지만, 한 입 마시면, 노래를 부르며 춤도 한다, 그것이 끝나면 또 한입 마신다. 그리고 술이 끝까지 남은 자가 이긴다는 방식으로 《후가누토우》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 때, 밤이 빨리 끝나 버리는 것을 아쉬운 젊은이의 한 사람이 「그렇다! 밤을 길게 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고, 코에 붙여 있던 장식을 벗고 기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처럼 벗어나지 않아서, 모두 도와주고 붙잡고 겨우 벗었습니다. 내용은 단지 그것 뿐인데, 뭔가 매우 즐거운 것처럼, 한 시간도 걸려 이야기 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좋았습니다.

-- 다음입니다. 신발이 있었습니까?

N : 평상시는 맨발이지만, 경의를 나타낼 때는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밌무누>(신는 것의 의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치》라고도 부르고, 짚지 이전의 풀의 신발입니다.

-- ‘후가누토’가 온 당시의 헤어스타일은 어땠습니까?

N: 대체로는 길게 남아 있지만, 머리를 묶을 때는, 1월 정도로 잠시 후 묶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기를 낳을 때. 그리고 남녀 모두 벼 낍기의 무리를 늘어놓을 때. 틀림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듭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묶는 습관이었습니다. 칸자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매월 하나의 새로운 칸자시를 만드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만들어 준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료는 대나무나 혹은 나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나는 지금도 자신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 실록의 표류기에는, 오로지 쌀을 먹고, 밤을 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N : 밤이 빛나는 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웃음). 당시의 섬의 사람들은 밤을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가득 먹고 싶지만, 대만과의 교역이라든지, 이리오모테섬에서 목재를 받으려고 하면, 그 때문에는 밤이 중요한 교역품이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참아 많이 먹지 않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교역품으로서는, 그 외에는, 《후가누토》의 시대 후에는 《바스》(바쇼)의 실을 이리오모테지마 호모치 쌀과의 섬들과의 물건 교환의 품목의 하나로서, 후의 시대에는, 소금이라든지, 지금은 하는 소금 누룩과 같은 것이, 대만의 남쪽의 섬들과의 원거리의 교역은.

-- 마시리, 오봉에 얹히거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N :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짠 매트 같은 것에 얹고 있었습니다. 오오쿠보의 할아버지가 항상 나를 위해 만들어주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오쿠보의 할아버지에게 《후가누토》의 무렵의 것이라고 주문해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만들어서 받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큰 것은 화판과 같다. 이것은 축하의 잔치나 기도 때의 제물을 늘어놓을 때에 사용합니다.

-- 밥은, 기저귀를 앞에 얹은 그림 그 이외에는 어떻게?

N : 그릇에도 넣었습니다. 상등으로 여겨지는 그릇은 《우부다사》를 조각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후가누토》에는, 이것에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초등학생 때, 학교 근처의 돌바닥 할아버지가 ‘어서 와라’라고 말하고, 내가 돌아가서 집 앞을 지나면, 즉시 찾아내고, 이 찻잔에 밥을 내주고, 그것을 전부 먹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릇은 크기 때문에 음식이 얇은 나에게는 좀처럼 먹을 수 없어서 괴로웠다.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지나가는 것을 제대로 보고 부르는 거예요.

-- 실록의 표류기에서는 양념은 해수만으로, 소금도 간장(히시오)의 종류도 있습니다가 되어 있습니다만 《후가누토》에 먹게 했다고 하는 요나구니 섬의 된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N : 쌀 된장이 있어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꽃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 배 경단을 만들어, 직화로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후가누토》의 무렵, 쌀은 기본은 현미에서 먹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은 꽃도 할 수 있습니다.

-- 음식을 넣는 나무의 화분이나 병설 등은 있었습니까?

N : 그릇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코우이카의 갑이라든지, 세마루 거북이의 갑라라든지, 몸의 주위의 여러가지 것에 담았습니다.

-- 입 찹는 술은 상당히 일상적으로 만들어 마지막 배 여행에서도 갖게 마시고 있던 것 같네요.

N : 네. 나는 지금도 스스로 만들고 마실 수 있습니다. “생명 쫓는 섬·요나나쿠”에서 그렸습니다만, 기도를 위한 찹는 술을, 불과 7세의 나 한사람이, 4 일이나 걸려 올면서 찹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도 때 제물로 늘어놓았습니다.

-- 그것은 힘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생선회가 있었습니까 ?

N: 지금까지 말하는 사시미라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후가누토》

가 해 보인 듯이 「치리치리」하고 먹었습니다. 물고기의 몸을 굳히고, 두드리면 토로로가 된다. 거기에 맛 빠르면 이렇게 맛있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그 이후, 섬의 사람은 생선을 잘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가누토》는 열매를 말리고 가루로 먹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향신료였을 것입니다. 나도 이야기로 들었던 대로 만들고 먹어 보면 맛있고도 정말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쌀의 떡은 이야기에서는 쌀을 2일간 물에 담그고 그것을 물을 잘라 잘 끓는 물을 만들어 거기에 엽니다. 한 번에 뜨겁고 찢다가 이것을 두드려 가면 떡이 됩니다. 지금 물에 넣고 가루로 만든 다음 찢과는 가열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야기대로 만들어 보면 시간이 지나면 딱 된다. 이것이라도 떡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먹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주었을 때, 이것은 떡이 아니라고 먹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양탄자는? 잠을 자는 이불 같은 것은?

N : 자는 때의 양탄자는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쿠마에의 앞(비로우의 앞), 거기에 《바스누하하》(바구니를 하고, 그 위에 구쿠누누하)를 많이 자르고, 깔고 그 위에 잠들었습니다. 여름에도 추운 날이 있지만, 그럴 때는 《바스누하》아래에 약을 깔면 따뜻하다.

지금은 장마를 가리키지만, 류큐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나서입니다. 류큐 왕국은 세금으로 천을 짜기 위해 긴 섬유를 잡을 수있는 참마의 재배 품종을 보급시킨 것입니다. ‘후가누토’의 무렵, 리마는 아직 요나구니 섬에 오지 않았습니다.

— 당시의 기모노를 만드는 방법은?

N : 가늘고 긴 천을 짜고, 그것을 3장 바느질해 폭넓은 천으로 한 관두복 같은 기모노. 기본, 소매는 없지만, 가끔 큰 소매의 것을 입는 사람이, 노인 등에 있었습니다. 물건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 《무라누우야》는, 그러한 소매가 있는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후가누토》들에게는 우선, 상하에 헤어진 의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두와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상하로 나뉘어진 것이 좋았던 것 같다.

—《쿠도우루즈미》(진흙 염색) 이외의 염색 방법은?

N : 염색물은 《쿠도우 루즈미》 이외에 《이치타라이》(돌의 통)에 여러가지 잎을 넣어 두드려 놓아두면 염색될 수 있습니다.

—당시, 쪽염은 있었습니까?

N : 남쪽 자체는, 우리 할머니는 오바마 섬으로부터의 것(콩과의 인도아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염직의 능숙한 두 사람의 할머니에게 말하게 하면《후가누토》의 무렵부터 산에 남쪽은 있었다고 합니다. 타데아이와 비슷한 타데아이가 아닌 것을 줄기도 전부 넣고, 다른 것도 섞어 물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점토를 넣어도 했습니다. 실이 있으면 그것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 표류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봉제 바늘의 재료는 무엇이였습니까?

N : 물고기의 뼈였습니다.

— 집에는 사타구니가 있었습니까.

N : 요리해 먹도록 《후가누토》에 췌는데, 먹을 것이라고 무심코 놓쳐 버렸기 때문에, 섬의 사람은 남은 냄새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만, 거기에 폭풍우의 고기의 조각이 들어가 있었던 것에《후가누토》는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 죽은 소를 먹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침을 뱉고 웃었다 라고 표류기에 있습니다만, 닭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새는 어땀습니까?

N : (세키레이의 종류)라는 고귀한 목소리로 울리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함정을 만들고, 게다가 숨어 걸고 있는 것이 발견하고, 이중에 나쁜 일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무라누야)에, 힘들게 「멘메코」(꾸짖어)(후가누토)가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라누야)에 방해받고, 인도해 줘서, 부탁한다고 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모두 붙잡고, 냄비에 끓여 모두 나누어 먹었습니다. 개구리는 가능한 한 다리가 뚱뚱한 것이 맛있다고 가르치면 기뻐하고, 할아버지가 개구리를 맛있게 찢 요리를 만들어 섬 사람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지네. 말려서 6마리씩 묶어 두고 먹었습니다. 나는 잡히자마자 어깨에 묻혀 먹었다.

뱀. 먹는다. 먹어서는 안되는 까망고 얇고 짧은 종류의 뱀도 있었습니다.

모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파리. 열탕에 한 번에 쏟아 부어 먹어요.

박쥐. 큰 것도 작은 것도 어느 쪽도 먹지 않습니다.

벌. 꿀이 있었다. 섬에서는 동지를 깨고 먹는다.

나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사마귀. 먹지만 맛있지는 않습니다.

잠자리.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렁이. 말려서 조금씩 국물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달팽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딧불. 먹었다고 들은 적이 없다.

게. 먹었습니다.

《후가누토》의 무렵에는 달팽이가 많이 있었으므로, 끓거나 굽거나 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후가누토》가 달팽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가누토》들을 조사해 보면, 건조시켜 두고, 조금씩 국물로 한다고 해서, 섬의 사람들도 말려 두어 조금씩 사용하는 《후가누토》의 방식을 흉내 내게 되었습니다.

-- 《후가누토》가 있었을 무렵의 요나구니 섬의 동물의 이용 방법은 《무라누야》가 결정하고 있었군요.

N : 네. 《후가누토》가 몰래 함정을 들고 잡아서 울 정도로 꾸짖었다

-- 대략적으로 말하면, 표류민이 「벌레」라고 말한 생물의 대부분은 《후가누토》가 실제로 먹은 것이었군요.

N : 네. 대부분은 《후가누토》의 시대부터 나의 시대까지 먹어 온 것입니다. 내가 행사를 위한 씹는 술을, 나 혼자서 4일간 씹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조시켜 둔 지네·거북의 다리·쿠이라부·도마뱀 등을 찢 국물과 꿀·라드·아마인 유 등이었습니다.

-- 집에는 고양이와 닭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N : 《후가누토》의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고양이와 닭은 둘 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발 전에 《무라누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 파도에 빠져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생 마음을 담아 기도해 가라. 《마운가나치》(고양이 하나님)에게는 감사를 말하고 존경심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족한 만큼은 내가 요나구니 섬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것을 듣고 《후가누토》들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침까지 하룻밤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이 겨우일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무라누야는, 다음날 아침은 젊은이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돌 보았습니다. 회복에는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다. 옛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한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상태가 되어, 그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간호해 주었으므로, 말해지고 있는 《후가누토》들의 실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 당시는 돌의 도구나 나무의 농-나무를 자르는 도끼는 있었습니까? 공구가 주었다고 생각되지만, 실록의 표류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N : 도끼는 있었지만 대체로 금속이 아니라 돌 도끼였습니다. 다만, 숫돌을 《후가누토》에 올리면, 매우 감사했다고 합니다.

-- 후가누토 전승에는, 처음의 식사 감자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고구마인가, 참마인가, 아니면 사쿠라일까요?

N : 고구마가 아닙니다. 주로 야마구마였습니다.

-- 《후가누토》는, 휘파람을 불었습니까? 그 무렵 피리가 있었습니까?

N : 휘파람은 《후가누토》의 이야기 속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휘파람

은 《후가누토》 자신이 불고 있었습니다. 멜로디를 낼 수 없는 피리입니다. 대나무의 한 마디를 5치수 정도로 자른 피리입니다만,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후가누토》들은 평소는 조용하지만 뭔가가 자극되면, 폭발적으로 화내는 것입니다. 《후가누토》들은 섬 사람들에게 삼가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당당하게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이 폭발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 기모노가 한 장뿐이라면, 남쪽의 섬이라고 해도 겨울은 추울 것입니다 ?

N : 겨울은 겹쳐 입는다. 4장 입으면 괜찮았다.

— 하스이모는 있었습니까? 야채입니다.

N : 《후가누토》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섬에서는, 맛을 붙이지 않고, 바다의 물에 조금 붙이고 나서, 먹고 있었습니다. 《후가누토》가 무언가의 국물에 붙여 먹고 있으면, 그것이 잘, 흥내를 내고 그 먹는 방법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줄기를 깎아 깎고 잎을 자른다.

—시시의 열매를 먹는 이야기는?

N : 있습니다. 이것은 생에서도 먹지만 찌서 먹는다. 찌 후 술도 만들었습니다. 쌀의 술보다 맛있을 수 있습니다.

— 섬에는 도적이 없고, 쪼그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는, 거친 아이를 붙잡고, 울어도 두드리거나 하지 않는다 라고 표류기에는 있습니다.

N : 그야말로 요나구니 섬에 옛날부터 전해지는 본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가누토》가 있었을 무렵에는, 섬에 《무라누야》가 있어, 그 아래에는 손발이 되어 움직인다. 다음 세대의 《갓 없는 누우바》(이웃의 긴 누나)라는 사람들이, 흠치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 혼자 굶주리거나, 혼자 가거나 하지 않게, 아이들이 소중히 되도록, 평소부터 마음을 배치하셨습니다.

— 그래도 때로는 충돌도 있었을까요?

N : 어느 날 밤 《후가누토》의 한쪽 다리를 심하게 밟고 도망친 자가 있기 때문에, 쫓아 보면, 차이가 있는 섬으로부터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표류민이 요나구니섬에서 이리오모테섬으로 보내진 것은, 표류기 전승에서도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리오모테섬이 아니고 대만에 보내려는 옵션은 없었습니까?

N : 물론 식량이 풍부한 대만에 보내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후가누토》가 있는 동안에, 대만인이 와서 《후가누토》의 음식이나 소지품을 빼앗으려고 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죽이고 나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라누야는 대만에 보내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부터는 배 하나를 탈 수 있을 만큼의 인원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대만행의 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상의 길은, 대만에 가는 편이 비교적 편하고, 오히려 요나구니 섬과 이리오모테지마의 등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파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후가누토》의 사람들은, 요나구니 섬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N : 후가누토 세 사람은 길을 걸을 때도 산을 걸을 때도, 쪽 빠져 다리가 빠르고, 섬 속을 보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이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뭐든지 흥미를 가지고 알고 싶었고, 납득할 때까지 들었다. 그렇게 섬의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즉 세 사람은 생활을 섬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좋은 의미로 무엇이든 보고 싶었고, 망설이는 일이 없고, 빼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로부터 보면, 모른다든가, 다르다든가 가득했던 것 같지만, 그것을 통째로 자신 안에 도입하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 거의 문화인류학자의 필드워크군요. 상당히 자세하고 그림에도 그릴 수 없는 장면이나 배경의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심의 상냥함을, 서로 가득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이 전승을 수업으로 들은 대학생의 감상입니다. “이 전승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후가누토》의 사람들이 섬의 문화나 규칙을 소중히 지킨 것처럼, 섬의 사람들이 낳은 《후가누토》를 환영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존경한 것처럼, 사람이나 문화, 거기에 있는 생각 나 역사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접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연구자 프로필

안케이 타카코(安溪貴子)

아이치현 출생. 생태학-민족생태학 전공. 야마구치현 내 대학에서 생태학-생물학 비상근 강사를 거쳐 현재는 야마구치현 내 간호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한편, '아동 제비농장'에서 가족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학박사.

안케이 유지(安溪遊地)

도야마현 출생. 인류학-지역학 전공. 야마구치현립대학 명예교수.
'아동제비농장' 부설 '생물문화다양성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교토대학 이학박사.

<첨부 2>

‘후가누토’ 1부 · 6부 채록 자료

1.1 옛날 옛날의 요나구니 섬에서

보이는 한도 끝도 없이, 주위는 바다입니다.
푸르고 푸른 바다와, 맑은 푸른 하늘.
산호의 바다에 있는 작은 섬, 그것이 요나구니 섬입니다.
이것은, 언제의 일인지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
오는 이야기입니다.

1.2 고양이와 닭의 큰 소동

아주 먼 옛날, 언제의 일인지 모를 만큼 오래전,
언제나 조용하던 섬이 갑자기 떠들썩해졌습니다.
고양이와 닭이 요란하게 울부짖습니다.
게다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달려다니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울부짖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뭔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
사람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3 바다에서 발견한 남자들

그런 어느 날, 네 척의 배가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섬 남쪽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중 한 남자가 웬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여, 섬의 동쪽 쪽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구니 섬과 이리오모테 섬 사이의 바다에서, 세 사람이 바다 속에서 한 장의 큰 판자에 가슴을 기대듯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은 부서진 배의 뱃머리 부분의 판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배로 끌어올려 보니, 파도에 휩쓸렸는지 거의 별거벗은 상태였고,

허리 둘레에 남아 있던 천도 가엾게도 너털너털했습니다.

각자 그 판자에 끈으로 배를 묶어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죽더라도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열심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우선 자기 옷을 벗어 그들의 몸을 덮어 주고, 서둘러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섬에서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고, 마을의 어른인 《무라누야》에게 전했습니다.

1.4 모두 함께 해변으로 맞이하다

순식간에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세 사람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먼저, 우물물을 끓여 마시게 했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하지?”

“섬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

사람들은 함께 모여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 생김새는 섬 사람들과 비슷했지만,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섬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오키나와나 일본, 중국, 대만, 또는 그 남쪽의 섬들 어디에서도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서양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머리카락이 물고기 꼬리처럼 짧은 걸까요?

혹시 나쁜 일을 해서 별로 머리를 잘린 걸까요?

수염도 기르지 않았고, 몸에도 털이 거의 없어 매끄러웠습니다.

세 사람은 열심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1.5 쪽을 모으다 · 닭과 고양이를 위로하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쪽 냄새를 맡게 하게. 그게 결정적인 거야.”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여러 종류의 쪽(ヨモギ)을 많이 모아, 잘 비벼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거야!”

그 당시 섬에서는 들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후가누토(ふがぬとう)》 일행이 조난당한 곳이
요나구니 섬과 그 동쪽의 이리오모테 섬 사이의 바다였기 때문
에,

동쪽 곳(東崎, あがりざき) 근처에서
쓴나물(んがな, 고채・ホソバワダン)을 캐던 사람이
남쪽으로 큰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눈치 채고,
급히 《무라누야》에게 알려러 달려갔습니다.

《무라누야》는 “이건 큰일이다” 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할 일이 없으면 가라” ,
젊은 여자들에게는 “세 사람을 직접 돌보아라” 라고 지시했습
니다.

그리고 노인 한 명도 함께 보내었습니다.

이 노인의 지혜로 쑥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1.6 첫 식사

사람들은 일을 나누어 매우 서둘러 세 사람의 식사를 준비했
습니다.

1. 쌀에 조와 산마(야마이모)를 섞은 밥.
2. 말린 생선을 구운 것.
3. 들풀과 콩으로 만든 국.
4. 쌀을 입으로 씹어 만든, 연하고 단 술.

또한 전년도에 채취한 《누히루(ぬひる)》의 소금 절임도 곁들였
습니다.

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만든 쟁반 같은 것 위에,
나무를 파서 만든 사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몇 그릇이나 더 달라고 하며,
“음무! 음무!” 하고 말하면서 마시듯이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
니다.

1.7 집을 지어 주다

말이 안 통하는 세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불이누토'(다른 사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한
사람씩 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대나무와 나무와 풀로만 이루
어진 집입니다. 섬에서는 밭고랑으로 지어지고 싶다 도이치다라
고 부르는 집입니다.

지금의 조노 북쪽의 '시키하마'의 조금 동쪽에, 세 사람 각각의
집이 생기기까지, 하루 반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점점 내가 요리도 할 수 있게 화덕도 만들었습니다. 나무와 대
나무와 풀로만 이루어진 집으로, 집 뒤는 풀밭 지붕이 그대로
땅에 닿아 있습니다. 마루는 대나무로 되어 있어서 잠자는 곳은
검정잎 위에 파초잎을 심었습니다. 추울 때는 사이에 벼짚을 넣
으면 폭신평신했다 해서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매일 '후가누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보러 갔
습니다. 또 후가누토의 집까지 아기 고양이를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 신체검사와 영혼의 건강

바다에서 구조되어 섬에 도착했을 때,
세 명의 《후가누투》(ふがぬとう, 낫선 사람)들은

지치고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기운을 되찾기 시작하자,
 《무라누야》는 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혀를 내밀어 보아라.”
 그는 혀를 잡아당기며 몸 전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한 《무라누야》는
 “배불리 먹어라.” 하며 준비해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무라누야》의 집에는 언제나
 자신의 손발의 손가락 수보다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때 사람의 ‘타마치’ (たまち, 영혼)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 떨어진 영혼을 다시 모아 몸 속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본래의 활기를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혼을 되돌리는 의식을 요나구니 섬에서는 《타마치수이》
 (たまちすい) 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했다가 구조된 《후가누토》들에게도
 기운을 회복하려면 이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라누야》는 그들을 구한 직후 곧바로
 《타마치수이》 의식을 치르도록 주선했습니다.
 또한 요나구니섬에서는
 남자를 사고나 병 등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여자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보통은 《부나이》(ぶない, 누이) 가 그 역할을 맡지만,
 《후가누토》들에게는 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라누야》는 세 명의 딸을 선택하여
 각각 《부나이가미》(ぶないがみ, 누이신) 으로서
 후가누토들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딸들은 《아투아부타》(あとうあぶた) 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은 “뒤의 어머니(후모)” 라는 뜻으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가누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후가누토》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매일 기도를 올리며 그들의 안전을
은밀히 지켜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1.9 속옷 《앗빠》와 첫 옷

바다에서 구조되어 요나구니 섬으로 데려왔을 때,
세 명의 《후가누토》(ふがぬとう, 낫선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
은 상태였지만, 두른 치마 같은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속옷은 요나구니 섬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후가누토》가 땅바닥에 선을 그리며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섬 사람들은 낫으로 자신들의 옷을 잘라
새 속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앗빠》(あっぱ) 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후가누토》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입을 옷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틀로 짠 가는 천 세 장을
물고기 뼈로 만든 바늘로 꿰매어
소매 없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의 즙으로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후가누토》 세 사람에게

젊은이들이 몸에 맞게 조금 작게 만든 옷을 입혀보니,
 몸집에 비해 너무 작아서
 팔과 다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
 《무라누야》는 쌀알이 들어 있는 부적을 건네주었습니다.
 《후가누토》 중 한 사람은
 기쁜 듯 고개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뒤에 만들어 준 옷은
 섬 사람들의 긴 옷과는 달리,
 위와 아래를 짧게 만들어
 따로 따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후가누토》의 속옷 《앗빠》는
 이미 해지고 너털너털했지만,
 그것을 팔려 펼쳐 참고로 삼아
 섬 사람들은 여러 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끈과 천의 끝에 두 개씩 고리가 달린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앉을 때의 자세도 달랐습니다.
 요나구니 섬에서는
 무릎을 벌리고 양발바닥을 맞대는 자세,
 즉 《비란카》(びらんか)라고 불리는
 앉는 법이 일반적이었지만,
 《후가누토》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내가 아는 어르신들도
 방 안에서 앉는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나무 아래에 돛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는

대부분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중략>

6.1 배와 밧줄의 준비

'불이누토'를 보낸 배는 '불이누토'가 돌아오는 날에는 바로 배를 낼 수 있도록 '불이누토'가 요나구니 섬에 도착했다. 그래서 곧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명을 보내는 사람들도 타려면 큰 배가 필요했습니다. 요나구니 섬의 재목은 작기 때문에, 우연히 이리오모테 섬에서 받아온 큰 나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또 토우즈루모도키로 만든 튼튼한 밧줄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6.2 떠날 준비와 고양이에 대한 감사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동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섬을 떠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기쁜 마음 좀 헤어지기 힘든 기분. 이 날을 위해서 섬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두를 보내기 위한 큰 배는, 세 사람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만들기 시작했고 분명히, 길 중의 부적으로서, 각각의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던 산호석을 닦은 작은 흙의 도자기 3개, 많은 음식 등, 생각할 수 있는 한의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했습니다.

(점토)를 반죽할 때 (후가누토)들이, 여행지에서 굶는 일이 없도록 (쿠푸리친)을 한층 더 잘게 부수어, 한 안주씩 섞어, 구워져

서 겨자는 여러 가지 음식의 국물을 뿌렸습니다.

“ 이 바람의 남동생의 바람이 불면 출발이야” 라고, 무라누야가 후가누토에게 말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에 감사를 하는 세 사람이니까, “동생처럼 바뀌면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는 천천히 기도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여기 요나구니 섬에서 기도해 주겠소.”

“당신들이 여기 오기 전에, 고양이들이 심하게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난다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도착을 그렇게 받아 들일 수 있었고, 고양이의 통신을 통해, 도둑이 너희를 덮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양이들이 지켜준 거야. 만약 고양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 하고 무라누야는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요나구니 섬(与那国島)의 우리는 고양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양이가 아니어도 닭, 염소, 돼지라도 좋습니다. 님 아이가 이상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전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바람이 오면 바래다 주는데, 앞에 섬에도 제대로 고양이가 있어서 후가누토들을 지켜줄까?” 라고, 섬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6.3 여행과 이별

섬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으로는 후가누토들과 이별하기 싫어, 못 가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무라누야는, 그런 슬픈 듯한 내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의 여행을 격려한다. 그렇게 타일렸습니다.

무라누야는, 3명을 보낼 사람으로서, 13명을 선택했습니다. 평

소에 배를 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물론 별을 보고 방향을 아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나 음식의 변질된 것을 알아보는 사람,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 등 다양한 힘을 가진 섬 사람들이 선택되었습니다.

후가누토가 출발하는 날까지, 섬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음식이나 소지품을 가능한 한 비축하고, 그것을 후가누토 타는 배에 실었습니다.

1 밥. 2 <번득한> (자두 열매)을 소금에 절인다. 3 '누히루'(노빌)을 소금에 절인다. 4 《까사라기》(젓갈). 가다랑어의 젓갈. 이것은 '후가누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5 《간다이유》(건어물). 6 <웅 '테온데'>(마의 전분). 7 《산닌》(겻우)을 말린 것. 8 《미》 '테'(입물림주). 만드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9 많은 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서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배가 드디어 섬을 떠납니다. 출발하는 장소는, 섬의 동쪽 끝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섬의 동쪽 끝의 '북음새' '테'(히가시자키)까지 모두가 바다 물가에 서서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진심으로 이별을 슬퍼 하면서 세 사람의 무사함을 기원하면서.

배 위의 세 사람은 만들어 준 부적인 흙을 곥고 손으로 만든 '비데리'의 모형 '비데리'에, 음식에 곤란하지 않도록 기도를 담은 것을 높이 바쳐, 깊이 절을 합니다. 그 작은 '마타비데리'가 섬 사람들에게는 크고 커보였습니다. 후가누토들은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두 팔을 벌리고 계속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6.4 파도를 넘어

이별을 아쉬워하며 바람을 타고 이리오모테도를 향해 그래서 세 사람을 내보낸 후의 일입니다.

요나구니 섬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고기를 잡으러 배를 냈다고 그 무렵, 폭풍을 만나 배는 파도에 휩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거친 바다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파도 이를 섬에서는 '우왕좌왕', 즉 '친자 이별의 물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사람은 바다에서 죽고, 또 한사람은 운 좋게 이리오모테도에서 도움을 받아 8일간 체재하고, 거기서 후가누토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리오모테지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는 소식을 요나구니 섬으로 가져왔습니다.

무라누야는 이 보답을 매우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6.5 세 사람을 뒤쫓으려 한 젊은이들

달빛을 받아 형제의 가위까지 맺었는데 무사히 고향 섬으로 돌아갔는지 모르다니 젊은이들이 쫓아가기 위해 배를 내자 라고 했습니다.

해변에서의 소란을 들은 무라누야는 격렬하게 젊은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느 항구에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쫓아 배를 내자니, 이제 추위도 오고, 아기도 태어난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들은 아침 해에 손을 모으고, 잠자리에 드는 달빛을 기뻐하는, 우리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무사할거야. 섬에 돌아가면, 반드시 어떤 '시라시'(보답)은 온다. 소식을 기다리라고.

그 말을 듣고 배를 내보내다 것을 포기한 젊은이들은 소리 내어 영영 울었습니다.

6.6 보답을 받을 나무를 심다

의형제를 쫓아가려다 포기하게 되고 젊은이들에게 무라누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튼튼한 나무 한 그루를 골라 심어라. 풍파를 고려하여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곳에 무릎 높이의 어린 나무를 심으세요. 이 나무가 후가누토들의 여행 소식을 받아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보답은 온다.

젊은이들은 그대로 부모와 자식 3대를 이어 이 나무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6.7 무라누야의 여행길

세 명의 후가누토를 소중히 지키고, 배웅한 후에도 세 명을 위해 무사하기를 계속 빌었다는 무라누야. 드디어 무라누야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바다가 거칠고 겨울의 춥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 무라누야는 두 가지 물건을 섬의 여인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는, 세 명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속옷인 '앗빠'. 다른 하나는 '쿠도루즈미'라는 검은 진흙 염색 천 세장. 저승에서는 분명 세 명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보여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이 흙탕물처럼 거무스름한 머리카락으로 원래 마음껏 배를 탔습니다, 라고.

이 '쿠도루즈미'를 한 곳은 여기에 그린 조남의 '나가도카'라고 불리는 우물입니다. 특별히 맛있는 물은 아니지만 '불이누토누카'의 우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6.8 알을 품은 암탉

무라누야가 떠난 후, 사람들은 무라누야 가 가르친 방법으로 후가누토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는지 어떤지를 알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암탉에게 알을 안겨주었고 그것이 돌아 왔다면, 후가누토가 돌아갈 수 있었던 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의 수는 한 마리당 6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마리의 닭을 다르게 방향을 향해 안겨주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알에서 병아리가 돌아오면, 모두 기뻐하며 “후가누토!” 하고 암탉을 감아 먹듯이 [스르륵 스르륵] 라는 구호 같은, 노래 같은 것을 계속해서 연주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한 창 훈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연구	전 경 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
공동연구	송 응 섭	총신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제주학연구 98

요나구니(與那國)의 제주도 표류민 기억 전승과 문헌 기록의 대비 연구

발행인 || 김완병

발행일 || 2025년 10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TEL (064)900-1825 FAX (064)900-1870

www.jst.re.kr

인쇄처 || 전주 온누리인쇄사

ISBN : 979-11-994020-4-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활용 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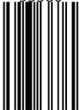
Center for Jeju Studies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TEL. 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9 791199 402041
ISBN 979-11-994020-4-1

비매품/무료
93380



이 책의 출판비 일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